

2022-1학기 확대운영위원회 속기록

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현재 시각 19시 07분부로 2022-1학기 확대운영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확대운영위원회의 의장이자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4대 비상대책위원장 겸 통일공대 학생회장 도시시스템공학과 17학번 배성호입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의장의 개회 선언에 따라 확대운영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확대운영위원회 사회를 맡은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4대 부비상대책위원장 겸 경영경제대학 학생회장 경영학부 18학번 류동현입니다. 우선 이번 회의는 회의진행방식 공포와 회의진행방식에 대한 통과 안건을 진행하고, 의결안건으로 1학기 학생회비 예산안 확정,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회칙개정, 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중앙대 회칙 개정,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시행세칙 제정, 중앙감사위원회 체제 개편 결의가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학생회비 사용내역에 대한 심의 안건을 진행하고, 보고안건으로 중앙집행위원회 업무 보고 및 각 위원회 업무 보고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통과안건 진행하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통과안건의 첫 순서로 회의진행 방식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료집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진행 원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기동안 그 내용은 실시간 영상으로 송출합니다. 또한 현장의 속기도 총학생회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속기자의 원활한 속기를 위하여 발언시 대표자분들께서는 가급적 발언을 천천히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로 정족수의 원칙에 따라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을 의사 정족수로 하며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을 의결 정족수로 합니다. 발언 자유 원칙에 따라 발언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저지당하지 않습니다. 단, 필요할 경우 의장은 발언 자유를 유보할 수 있으며 이 때 의장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별될 시에는 의장의 결정에 반대안을 제출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수결과 소수 의견 존중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회의에서 일단 의결된 내용은 그 회의 중에 다시 상정될 수 없습니다. 단, 필요한 경우 권한을 사용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의결 재심의 성립 기준은 의결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안건의 채택과 의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원안에 대한 삭제는 찬반 토론 없이 출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안건의 추가 상정 및 수정은 찬반토론 없이 출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회칙 통과 안건 이후의 회순 변경은 출석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진행발언 관련 규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언자는 비표를 들어 발언 의사를 표시하며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발언합니다. 발언시 발언자는 먼저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발언의 요지를 밝히고, 다음에 부연설명을 합니다. 각 안건에 대한 대표 찬반토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의사 진행 요원에게 신청하고 발언 신청 적용 찬성과 반대 최대 2인씩 의장이 지명합니다. 발언 시간과 발언자의 수는 각각 다음과 같이 제한합니다. 각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5분 이내, 질의 응답 5분 이내, 3인 이하 대표 찬반 토론 5분 이내, 의사 진행 발언 및 기타 2분 이내. 단, 특별한 사안에 대한 제안 및 대표자 토론 발언 시간 및 대표자 수는 의장의 제안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해당 안건에 대한 동일한 발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회로 합니다. 다음으로 각 안건에 대한 일반적 토의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상정된 원안에 대한 제안 설명, 질의 및 답변, 원안에 대한 찬반 토론, 토론 종결 후 수정안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원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고, 수정안이 제출된다면 발의자로 하여

금 제안 설명을 듣고,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 토론 종결 후 수정안에 대한 찬반 의결로 진행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면 원안은 자동으로 파기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안건의 의결이 시작된 시점부터 의결이 종료된 시점까지 자리 이동을 제한하며 그 밖의 의사결정규칙은 일반적인 회의 진행 규칙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더불어, 참여대표자수가 재적대표자의 과반을 넘지 못할 경우 회의가 중단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대표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 제출한 사유와 같이 불가피하게 중도 퇴장하여야 하는 대표자께서는 회의장 앞에 있는 스태프분들께 비표와 퇴장 사유를 밝히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자료집을 참고 및 확인할 수 있는 시간 1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통과안건에 대한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린 통과안건에 대해 질의 있으신 분은 기표를 들어 발언권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사회과학대 비상대책위원장 대리인 이현수: 두가지 질의가 있는데요. 먼저, 첫번째는 의사진행과 관련된 규칙 4항 둘째줄에 보면 질의 답변은 5분 이내, 3인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5분 이내 그리고 3인 이하라는 뜻인지 5분 이내 또는 3인 이하라는 뜻인지 명확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회의 진행 방식 검토에서 (녹음상태불량) 추가상정하고 괄호 수정이라고 되어있고, 찬반토론시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뒷쪽 참고에 의안이 종류 2항 수정안을 보면 수정하는 제정이 있으면 곧바로 수정이 되고, 표결로 수정안을 채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 제출의 절차와 요건을 좀 더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과 관련된 규칙 4항에서 발언시간과 발언자 수 제한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형태는 5분 이내 그리고 3인 이하로서 5분이 지나거나 혹은 3인이 발언을 했다면 발언시간과 발언자의 수는 제한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안건의 추가상정에 관한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상정되어 있는 안건 외에 추가 상정에 대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며 수정안은 일반적인 회의와 같이 회칙 개정에 대해서 수정안이 발의될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부터 의결하며, 이 외 일반 안건에 대해서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 대리인 이현수: 그러면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의 경우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하게 되고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면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하게 된다고 이해하면 맞을까요?

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총학생회 회칙에 의거해서 회칙 개정의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통해 가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칙개정과 관련해서는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일반 안건에 대해서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 대리인 이현수: 그럼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의결수의 차이는 없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네, 맞습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추가적으로 질의해주실 대표자분 계시면 비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없는 관계로 통과안건에 대해 의결 진행하겠습니다. 통과안건에 찬성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의결 확인을 위해 조금만 더 높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통과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표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통과 안건에 대해 기권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결과 산정 중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집계 결과 오류로 다시 한 번 재의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과안건 찬성하시는 대표자 분께서는 비표를 머리 위로 들어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표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현재 의결 집계 중에 있습니다만, 간단히 의사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만에 오프라인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진행하는 오프라인 대표자 회의인 만큼 조금도 오차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결 중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재의결을 통해 정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스태프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대표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안건이었던 만큼 의결에 시간이 걸리고 있으나 차차 문제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대표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입장 시에 비표 넘겨드리면서 출석 인원을 확인했습니다만, 현재 출석인원 수와 참석인원 수에 다소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각 단위 각 단과대 대표자 여러분께서는 현재 참석하고 있는 각 단위의 대표자 인원수를 중앙운영위원회 단톡방 통해 제게 전달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비대위위원장 류동현: 밖에서 누락된 인원이 확인되어 오차가 없는 관계로 이어서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과안건에 대해서 재의결 찬성하는 대표자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통과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 비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통과안건에 대해 기권하시는 대표자분들 비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과안건 집계 결과입니다. 96명중 찬성 95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의결안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학기 학생회비 및 예산 확정에 대한 안건입니다. 각 단위별 학생회비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의해 가결되었기에 의장님께서 각 단위별 학생회비와 총학생회비 예산안 확정안에 대해 설명해주 주시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네 자료집 7페이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각 단위별로 배정한 학생회비에 대한 확정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2-1학기 학생회비 중 총학생회로 배정된 금액을 대표자 분들께 의결 받음으로써 합리적인 계획적인 지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생회비 배부 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생회비 9500원 중 단과대 기본 배정액 4400원, 역비율 환산액 250원, 추가배정액 200원으로 배분하였으며, 중앙단위 배정액 중 80%에 해당하는 3,520원을 총학생회비로, 20%에 해당하는 880원을 동아리연합회로 배정하였습니다. 전학대회비는 250원입니다. 현재 3차 학생회비까지 입금 및 배분된 상황이며, 4차와 5차 학생회비에 대해서는 5차 학생회비 입금 완료 이후 배분할 예정입니다. 단과대학 및 중앙단위 전학대회 배정액은 자료집 8페이지 상단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총학생회비 예산안 확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집 8페이지 하단 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은지난 63대 총학생회로부터 인계 받은 이월금 27,121,810원, 1학기 학생회비 25,847,040원 등 총 63,425,947원입니다. 지출 예정으로는 축제 지원 3백만원, 위원회 지원 3백만원 등 비상대책위원회 체계인 점을 고려하여 예년 수준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대표자 여러분의 심의 부탁드립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네, 자료집 7페이지와 8페이지 예산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 1분 부여하고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여드린 1분의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1학기 학생회비, 총학생회비 예산안 확정에 대해 질의 기 있으신 대표자 분은 비표를 들어 발언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가져다주시겠어요?

경영학부 학생회장 박신화: 1학기 총학생회비 예산안 확정액을 보면 전학대회에 1,906,750의 예산이 확정되어 있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더 상세한 예산안을 알고 싶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네,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학대회비는 최초에 1인당 납부금액인 9500원에서 1인당 250원씩을 할당한 금액입니다. 이에 따라서 250원 곱하기 학생회비 납부자 수가 전학대회비가 되겠습니다. 이 전학대회비를 사용을 해서 학생대표자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의 전반적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학대운영위원회에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집, 식수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영대 학생회장 박신화: 답변 감사합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추가질의 없으시면 바로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학생회비 예산 상정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비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들은 비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기권하시는 분들은 비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결과입니다. 참석 인원 94명중 찬성 92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중앙대학교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 회칙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네, 오탈자 및 용어수정, 현행과 맞지 않는 회칙 내용에 대해 현행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회칙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은 내용에 대한 구체화를 통해 학생회칙과 학생회의 목적 실현하고자 합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총학생회칙 개정의 첫 번째 의결로 제 4조 일부 개정의 건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제안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 자료집 23페이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회원 전체를 구성으로 하는 학생총회는

총학생회 회칙 제14조의 2에 의거하여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을 탄핵 심판하여 탄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조 3항에 이미 명시되어있는 바와 같이 회원은 선출직 및 임명직에 대한 심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원이 선출직 및 임원진에 대한 탄핵의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명확히 명시하기 위하여 제4조 3항 탄핵소추심판권을 통합하는 의미인 탄핵권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대표자 여러분의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해당 안건에 대한 모든 내용을 1분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네, 부여드린 1분이 지났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대표자분들은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원안에 대한 찬반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 원하시는 대표자분들이 없어 다음으로 수정안 제출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수정안 제출 원하시는 대표자분들은 비표를 들어 발언권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정안 제출을 원하시는 대표자 분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대표자 분들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대표자 분들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기권하시는 대표자 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집계 결과입니다. 참석 인원 94명 중 찬성 9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총학생회 회칙 개정의 두 번째 의결안건으로 제 14조의 2, 제17조 37조 등 일부 개정건에 대해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설명해주시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네, 자료집 24페이지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탄핵 소추란 검사가 소를 제기 한다는 의미로 우리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생회칙상 별도 재판 과정을 진행하진 않습니다. 학생총회의 표결로 탄핵을 결정짓기 때문에 표결로 안을 상정하는 의미인 탄핵 발의라는 표현이 더욱 정확합니다. 제 14조의 2항과 3항, 제17조의 3항, 제19조의 5항, 제39조의 9항에 명시되어 있는 탄핵 소추를 탄핵 발의로 용어수정하여 바로잡고자 합니다. 대표자 여러분의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00:52:00]

부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네, 해당 내용에 대해 1분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여드린 1분의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하실 분 계시면,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영학부 학생회장 김상민: 네, 안녕하세요. 지식경영학부 학생회장 김상민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명시를 읽어보면 제39조 9항이라 되어있는데 위에 소제목을 보면은 제37자로 써져있어서 이거에 대해

서 오탈자가 있는 것 같아 한 번, 의견을 드렸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죄송합니다. 자료집에 오탈자가 있었습니다. 자료집 안건 설명 4번째줄에 제39조의 9항이라고 작성이 되어있는데 해당 문장은 제37조 9항으로 정정되는 것이 적합하겠습니다. 자료집에 오탈자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식경영학부 학생회장 김상민: 이상 추가질문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추가질문하실 대표자분께서는 비표 들어 발언권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심리학과 학생회장 임미래: 네, 안녕하세요 심리학과 정학생회장 임미래라고 합니다. 제14조 2에 4항, 5항, 6항을 보시면 이 부분이 피소추인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탄핵 소추라는 단어를 발의로 변경을 하려면 이 단어 또한 같이 변경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탄핵 소추를 탄핵 발의로 용어 수정하더라도 의미 해석에 있어 달라지는 부분은 없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미로써 소추인과 피소추인으로 작성을 하더라도 해당 조항을 해석하는 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추후, 수정안을 제출해서 해당 내용을 어떻게 수정할지에 대해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추가 질의하실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부여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대표자분이 없으므로 찬반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희망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희망하시는 대표자분은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 희망하시는 대표자분 한 분 계십니다.

경영학부 B반 부학생회장 이주원: 네, 저는 경영학부 B반 부학생회장 이주원입니다. 발의해주신 수정한 내용이 논리적으로 오류가 없다고 생각해서 찬반토론을 해보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의견을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해당 내용에 대해 찬반토론을 신청하시는 것은 아니실까요? 찬반 토론을 신청하시는 걸까요?

경영학부 B반 부학생회장 이주원 : 찬반토론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아, 찬성으로서 찬반토론에 참여를 하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실까요?

경영학부 B반 부학생회장 이주원: 네네,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네, 그러면 찬반토론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참여하실 대표자분 있으시면은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 내에서 반대측 입장이 안계십니다. 찬반토론에 있어서 찬성으로 참석 희망하시는 건 해당 안건에 있어 동의를 의미하시는 것이 맞으실까요?

경영학부 B반 부학생회장 이주원: 네, 맞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네, 그러면 추후 의결을 진행할 때 찬성, 반대, 기권 중에서 택해서 비표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영학부 B반 부학생회장 이주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다음으로 수정안 제출 여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심리학과 학생회장 임미래: 네, 심리학과 정학생회장 임미래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14조 2의 4항, 5항, 6항에 대해서 소추인이라 명시된 부분을 조금 이제 탄핵 발의와 관련된 부분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유는 탄핵 소추라는 단어 자체를 탄핵 발의로 변경하는데 소추라는 단어가 인이라고 명시되어있다고 해서 변경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해당 수정안으로서의 상정을 위해서는 명확히 단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선은 추가 발언권 부여를 요청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추가 발언권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사회과학대학 부비상대책위원장 김어진: 네, 사회과학대학 부비상대책위원장 김어진입니다. 네, 제안설명은 이전에 심리학과 정학생회장님이 주신 의견과 동일하고요. 수정안에 대한 정확한 명칭이 제시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제안 드리려고 마이크 들었습니다. 소추인이라 된 부분은 발의자로 변경하는 것을 요청하고요. 피소추인은 피탄핵인으로 변경하는 수정안 제안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네, 감사합니다. 사회과학대학 부비상대책위원장께서 발의해주신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14조의 2에 명시가 되어있는 4항 피소추인을 피탄핵인으로 정정합니다. 5항에서 탄핵심판에서 소추인을 발의자로 변경합니다. 발의자와 피소추인은 피탄핵인으로 변경합니다. 5항을 수정함으로써 탄핵심판에서 발의자와 피탄핵인은 사안의 객관적 판단을 위해 증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지며 증인은 탄핵심판장에 출석해 증언한다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항에서 피소추인은 피탄핵인으로 변경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당 내용으로 수정안을, 수정안으로서 판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수정안에 대해 질의 및 답변하실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보안학과 부학생회장 이준학: 네, 안녕하세요 산업보안학과 부학생회장 이준학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피탄핵인이란 표현 자체는 탄핵심판 그러니까 탄핵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탄핵을 이미 당한 사람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단어인 것 같아서 피탄핵인이 아니라 다른 표현으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마이크 발의인에게 전달 부탁드립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발의자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과학대학 부비상대책위원장 김어진: 네, 사회과학대학 부비상대책위원장 김어진입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괜찮을까요? 죄송합니다.

산업보안학과 부학생회장 이준학: 피탄핵이라는 단어의 뜻을 해석하면, 해석이 잘못될 여지가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기재되어 있는 피탄핵이라는 단어가 이 부분이,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 탄핵이 완벽하게 결정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탄핵 소추를 당한 그러니까 탄핵을 해야겠다는 그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정확하게 탄핵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미 탄핵이 된 사람을 뜻하는 피탄핵인이라는 단어는 탄핵심판을 하는 시점에 있어 그 사람을 지칭할 때, 조금 부적합할 것 같다는 그런 질의입니다.

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추가적인 질의 있으신가요? 네, 발언권 요청하셨기 때문에 발언권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 대리인 이현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 대리인 이현수입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탄핵의 의미에 대해서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칙을 논의할 때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어서 그 때 논의하면서 제가 당시에 공공인재학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논의했던 내용을 간단히 전달해드리면, 탄핵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모든 탄핵 과정의 결과, 그러니까 공직에 있던 사람을 파면함으로 인한 결과를 탄핵이라고 부른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탄핵은 탄핵 소추 혹은 탄핵 발의부터 탄핵이 가결되어서 파면까지의 결과에 대한 과정 전부 혹은, 또는 그 앞의 탄핵을 발의하는 것까지가 정확한 해석이고요. 탄핵의 결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탄핵 당했다고 말하기는 하지만, 탄핵의 결과는 파면 혹은 해임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탄핵인이라는 말이 이미 파면된 혹은 해임된 사람을 부르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이미 파면되거나 해임된 공직자를 의미하는 걸로 알려져 있기도 해서 처음 발의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피탄핵인으로 해도 저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기도 하고요. 혹은 오해의 여지가 있다면, 피징계인이라고 불러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론하는데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의견 드려 봤습니다.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과학대학 부비상대책위원장 김어진: 네, 질문에 대한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요지를 파악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시 가능하다면, 피탄핵인이라는 모호한 단어로 인해 확실치 않다 하신다면 피탄핵발의자 정도로 다시 정정하는 것이 해당 항에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해당 단어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수정안 자체를?

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기존 수정안을 파기하시고 새로운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학대학 부비상대책위원장 김어진: 네,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수정안을 이전 수정안을 파기하고 현재 수정안으로

변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께서는 추가 수정안 제출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추가 수정안 발의하실 분 계신가요?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부동산학과 학생회장 홍성재: 네, 도시계획부동산학과 회장 홍성재입니다. 저희 탄핵, 피탄핵발의자로 명칭을 바꾸게 된다면, 조사가 이로 되어 있어서 조사만 가로 바꾸는 것으로 해서 수정안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대표자 신원 확인 불가): 다름이 아니라 14조 3항을 보면, 거기가 원래 피소추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발의자로 변경되어 있어서, 수정안 제출 하실거면 피탄핵발의자로 변경 부탁드립니다.

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두 건 모두 추가적인 수정안 제출이 아닌 제출된 수정안에 있어서 변경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수정안 제출 의사가 있으신 대표자 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산업보안학과 부학생회장: 네, 산업보안학과 부학생회장 이준학입니다. 피탄핵발의자라는 단어가 법률 용어도 아니고 방금 이야기를 하면서 새롭게 정의된 단어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의미가 와닿는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탄핵 대상자 정도로 수정하면 어떨지 의견드립니다.

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새로운 수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출된 수정안이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수정안 하나를 더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소추인을 탄핵 심판 대상자라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자면, 앞서 저희 대표자분들께서도 말씀해주셨던 바와 같이 법률상의 용어라든가 앞으로 이 회칙이 학생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될 것을 고려하였을 때, 회칙을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가능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탄핵 심판 대상자로서 피소추인을 인식되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출이 된 수정안이 세 가지가 있는 관계로 이전에 제출된 수정안을 모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해주신 대표자께서는 해당 수정안을 지속하실 것인지 철회하실건지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네, 추가적으로 말씀해주시는 대표자분들께서는 저희가 배리어프리한 회의를 위해서 현장 속기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 속도를 조금만 늦춰주시면 속기록 작성하는데 좀 더 원활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네, 우선적으로 첫 번째 수정안 발의하셨던 사회과학대학 부비상대책위원장께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학대학 부비상대책위원장 김어진: 네, 사과대 부비대 김어진입니다. 이후에 나온 두 가지 수정안이 더 적합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드렸던 첫 번째 수정안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네, 다음으로 두 번째 수정안 제출하신 분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보안학과 부학생회장 이준학: 네, 저도 탄핵 대상자보다 탄핵심판 대상자가 좀 더 정확한 의미 전달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저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네, 감사합니다. 현재 제출되어있는 수정안은 의장이 발의한 한 가지 수정안만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수정안에 대해서 남은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네, 해당 수정안에 대한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수정안에 대해 기권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수정안 집계 결과, 참석 인원 96명 중 찬성 95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네, 수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원안은 자동으로 파기되겠습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총학생회칙 개정의 세 번째 의결안건으로 제13조, 제21조, 제28조 일부 개정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제안 설명해주시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네, 자료집 26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총회는 500인 이상의 연서를 통한 요구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와 확대운영위원회 회의는 회원 300인 이상의 연서로 안건 상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안건 발의자 혹은 대리인이 회의 참석하여 안건의 원활한 이해와 질의응답을 위하여 안건 상정 배경과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각각의 제 13조 2항, 제21조 3항, 제28조 3항의 단, 안건 발의자 혹은 대리인은 회의에 참석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대표자 여러분들의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 해당 안건에 대한 내용을 1분 간 검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여드린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 대리인 이현수: 네,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 대리인 이현수입니다. 안건 설명에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안건 발의자 혹은 대리인이 회의에 꼭 참석해야 한다는 의미로 발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학생총회 부분에도 안건 발의자 혹은 대리인이 참석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있는 것 보면, 안건발의자는 학생이므로 당연히 참석할 수 있을텐데도 이렇게 내용에 추가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안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 안건 발의자 혹은 대리인이 회의에 꼭 참석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올려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 나온 문구만 보면 그렇게 해석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거를 심의하는 자리에서 의장님께서 이 조항은 안건 발의자 혹은 대리인이 회의에 꼭 참석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혀주시면 앞으로 학생자치에 좀 더 도움될 것 같은데 이러한 해석이 맞는지 의장님께서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18:00]

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 네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하게 된 배경은 안건 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우리 학생회칙은 그 회칙 자체로도 우리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문장을 명시하는 것은 앞서 안건 설명에서 드렸던 바와 같은 효과를 갖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과대 비상대책위원장 대리인 이현수 : 네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 추가질의 있으신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 질의하실 대표자분이 안 계시므로 원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희망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하시는 대표자분이 없는 관계로 바로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 수정안 발의 여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 해당 안건에 대해 수정안 제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대표자분께서는 내용을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수정안이 없는 관계로 원안에 대한 의결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대표자분들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기권하시는 대표자분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집계 결과입니다. 참석 인원 97명 중 찬성 9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총학생회 회칙개정 네 번째 의결 안건 37조 일부 개정의 건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설명해주시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 자료집 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 회칙 제 35조에 의한 의거한 최고 운영기구로 우리 학생사회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도 매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회의록이 중대중심을 통해 업로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 회칙에 명시하고 있는 바가 없어 현행과 같이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록의 작성과 회원이 요청할 시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회칙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제 37조 11항 중앙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회원이 요청할 시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대표자 여러분들의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 해당 안건에 대해 1분 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여드린 시간이 모두 지나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주시길 바랍니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철학과 학생회장 도규호 : 네 안녕하세요. 철학과 학생회장 도규호입니다. 내용을 읽어 보면 회원이 요청할 시에 회의록을 공개한다라고 쓰여있는데 지금도 매주 중대중심에 회의록이 공개되어 있는데 회원이 요청할 시 추가적인 조건 하에서만 회의록을 공개하시는건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공개하는데 이에 대한 명시 조항을 발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 회원이 요청할 시 언제든지 그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담고 싶구요. 앞으로도 선례로써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운영위원회 회

의록이 작성되고 공개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철학과 학생회장 도규호 : 네 감사합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의가 없으므로 원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 참여를 희망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하시는 대표자분이 없으므로 수정안 제출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대표자 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심리학과 학생회장 임미래 : 네 심리학과 학생회장 임미래입니다. 기존 형들이 전부 명사로 끝나는 것에 반해 새로 신설되고자 하는 조항은 동사로 그렇게 문장의 형식으로 끝나서 이 부분을 회의록 작성 및 회원이 요청할 시 회의록 공개로 변경하는 것을 수정안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 심리학과 학생회장께서 해당 문장을 회의록 작성 및 회원이 요청할 시 회의록 공개로 수정안을 발의해주셨습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 해당 수정안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철학과 학생회장 도규호: 네 철학과 학생회장 도규호입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해주신 항상 회의록을 공개한다는 것과 방금 수정안 제출해주신 심리학과분께서 두 분의 의견을 종합해 봤을 때 회원이 요청할 시보다는 항시 회의록 공개라는 표현이 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 새로운 수정안을 발의해주시는 건가요?

철학과 학생회장 도규호: 네 새로운 수정안 발의하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 해석의 차이가 없는 그 문장 다듬는 부분 때문에 회의록 작성 및 공개로 수정안을 상정해 주는 것이 어떠하실지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철학과 학생회장 도규호 : 네 동의합니다.

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 네 그럼 철학과 학생회장께서 상정해 주신 수정안은 회의록 작성 및 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 해당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 네 현재 상정되어 있는 수정안이 2가지가 있습니다. 앞서서 심리학과 학생회장께서 수정안을 제출해 준 바가 있기 때문에 이전에 제출해주셨던 수정안을 파기할 것인지 이어가실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과 학생회장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심리학과 학생회장 임미래 : 네 수정안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 네 감사합니다. 현재 제출되어 있는 수정안은 지금 현재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한 가지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 해당 수정안에 대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대표자 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경영학부 학생회장 박신화: 경영학부 학생회장 박신화입니다. 지금 보면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주제가 담겨 있지 않아서 중앙운영위원회는 회의록 작성 및 공개로 새로운 수정안을 발의하고 싶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 앞서서 진행되었던 앞서서 발의해주셨던 사안에 대한 질의 응답은 질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새롭게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여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용통계학과 학생회장 이채은: 응용통계학과 학생회장 이채은입니다. 방금 발의해주신 수정안에 대해서 여쭙볼 게 있는데 저게 지금 37조 자체가 중앙운영위원회의 업무와 권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조항인데 밑에 ‘중앙운영위원회는’이라는 말이 중복되는 말인 것 같아서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경영학부 학생회장 박신화: 조의 제목에 중앙운영위원회라는 명시 하에 조가 개설되어 있지만 회의록 작성 같은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가 아닌 모든 단위에서 작성 및 공개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조에 중앙운영위원회라는 단어를 명시해서 그 주제에 대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수정안 발의드렸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 추가적인 질의있으신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학부 c반 학생회장 안민혁 : 네 안녕하십니까 경영학부 C반 학생회장 안민혁입니다. 저도 11조에 중앙운영위원회라는 주체가 포함이 되어야한다는 그 점에 동의를 합니다. 따라서 그래서 추가적으로 수정을 요청드리고 싶은데 ‘중앙운영위원회는’이 아닌 ‘중앙운영위원회의 회의 진행시’ 이런식으로 수정을 하면 어떨까라고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 발의자로 하여금 제안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전달 발의자분께 부탁드립니다.

경영학부 학생회장: 네 동의합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초과해서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 답변을 희망하시는 대표자분 계시면은 의결 진행 후에 질의 답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 한 분 추가 질의

사과대 비상대책위원장 이현수: 질의 답변이 아니구요. 의사진행 발언에 가까울 것 같은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 네 말씀해주십시오.

사과대 비상대책위원장 대리인 이현수 : 사실 이 발언이 어느 성격에 분류되어야 할지 어느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할지 헷갈려서 계속 가만히 있었는데요. 사실 다들 말씀하시는 취지는 비슷하신 것 같은데 이 37조의 전체적인 구성 형태 때문에 다들 의견이 많이 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37조는 사실 원래부터 그러니까 원안과 그 이전에 현행부터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헷갈리시게 되신 것 같습니다. 37조 1 2 3 4 5 6 7 8조 10항은 사실은 항이 아니라 호로 편제되어야 맞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의 권한을 갖는다라는 문장은 지금 각 항 외의 부분으로 편제되어 있는데 이게 제 1항이어야 사실은 전반적인 구성이 맞는 것인데요. 그게 원래부터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의견을 미리 들어봐야 하지만 지금 회의 현 상황에서 그럴 수 없어서 제가 먼저 의견을 드리자면요 원안에서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부분을..

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 네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에 의사진행발언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과대 비상대책위원장 이현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의사진행 발언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과 지금 수정안 발의해주신 분들이 협의해서 어.. 아닙니다. 그냥 수정안 발의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수정안 발의 의사 다시 말씀드리고 의장님께서 허락해주시면 수정안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 네 우선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에 다양한 수정안들이 발의되고 질의 답변이 요구하다 보니 회의장에 혼란이 있는 것 같아 정리를 먼저 진행하고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 대리인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은 일반적으로 회칙을 개정하는데 제 37조 다음에 나와 있는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가 항으로써 이해되는 것이 맞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도 의견을 교류했던 바가 있습니다. 우선 장이 중앙운영위원회로 명시가 되어 있고 제 37조에서 업무 및 권한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인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의 내용이 필요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미 설명하고 있는 바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 부분을 설명해주신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구요. 추가적으로 종합적인 내용을 수정 발의 시간에 제가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발의 여부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수정안 발의할 대표자 분 계시면은 비표를 들어 발언권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사과대 비상대책위원장 대리인 이현수 :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 대리 이현수입니다. 아까 중운위에서 논의하셨다는 내용은 확인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은 조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표시하는 것이고 제목 뒤에 어쨌든 이 조, 이 항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는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37조의 업무 및 권한이라는 조 제목 다음에 제 1항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라는 내용은 추가되는게 국법상로나 혹은 우리가 배우는 이론상로나 더 맞기도 하구요. 그리고 지금 여러 학생대표자 여러분께서 혼란을 겪고 계신걸 보면 그렇게 좀 더 명확하게 편제가 되

는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설명해주셨지만 죄송하게도 수정안을 발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37조 제 1항을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고 하고 원안 그리고 현행에 있던 1항부터 10항까지를 제 1항이 1호부터 10호까지로 하고.. 다 전달이 되셨을까요? 그리고 원안 제 11항에서 여러 학우님들이 의견 주신 내용을 반영해서 중앙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매주 회의록을 공개해야한다고 수정안 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 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베리어 프리한 회의를 위해서 속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발언 속도를 조금만 늦춰주시면 속기 작성하는 데 원활히 작성될 것 같다고 하십니다.

사과대 비상대책위원장 대리인 이현수 :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속기하시면서 혹시 못 들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사회자님이 다시 말씀해 주시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 마지막 11로 표기되어있는 부분은 동그라미 2번으로 변경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수정안 발의 의사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 혹시 추가적으로 수정안 발의하실 대표자분 계시면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 수정안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앞서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 대리인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현재 제 37조에는 어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미 장명에서 중앙운영위원회를 명시하고 있고 또한 37조의 역할을 업무 및 권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현 회칙에서 작성되어 있는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과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외 조항들을 살펴보다라도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의 임무 및 권한을 명시하고 있는 제 30조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외에 모든 조항들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정안을 발의하는 내용은 현재 작성되어 있는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는 문장을 삭제하고 현재 일부 개정의 건으로 상정 되어 있는 11번 동그라미에 대한 내용을 회의록 작성 및 회원이 요청할 시 공개하도록 한다고 내용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유는 회의록 작성과 공개 역시 중앙운영위원회의 업무와 권한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단입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 수정안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 현재 37조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는 삭제하구요. 그리고 회의록 작성 및 회원이 요청할 시 공개, 정정하겠습니다. 회의록 작성 및 공개로 하겠습니다. ‘회의록을’만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수정안을 발의할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 얻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수정안이 없는 것으로 하고 현재 상정 되어 있는 수정안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앞서 상정되었던 수정안 발의자분께 수정안을 철회하실지 그렇지 않으실지를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 대리인에게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1:44:00]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 대리인 이현수: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 대리인 이현수입니다. 수정안 제가 드렸던 거 다시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회원이 요청할 시’ 부분을 ‘매주’로 수정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워낙 말씀 드린게 많아가지고 잘 전달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정안 철회 의사가 있느냐고 의장님께서 여쭙봐 주셨는데 수정안을 지금으로써는 철회할 의사는 없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가지 않아도 회칙에서의 특별히 큰 문제가 생기는건 아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학생대표자들이 혼란스러울 수가 있고 그리고 어쨌든 좀 더 올바른 형식으로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수정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가 수정안 4번이라고 나와 있는 제가 제안드린 수정안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네, 현재 제출되어있는 수정안이 2가지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발의해주셨던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 대리인의 안을 1안으로, 그리고 이후에 의장이 발의한 안을 2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구성원들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 얻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없으신 걸로 하고 2안으로서 의장이 발의했던 내용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2가지 안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안을 1안과 2안으로 해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1안과 2안, 그리고 기권으로 해서 의결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을 대표자 여러분들께 제안드립니다.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대표자분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주시길 바랍니다. 추가 발언권 요청이 없는 관계로 각각의 안에 대해서 1안, 2안, 기권으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수정안에 대해 1안에 찬성하시는 대표자 여러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비표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 2안에 찬성하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비표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 기권하시는 대표자분들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비표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집계 결과입니다. 참석인원 98명 중 1안 13명, 2안 75명, 기권 10명으로 2안이 채택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의결은 2안에 대한 선택에 대한 의결이고 2안에 대해 다시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네 이해가 쉽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수정안이 2가지가 발의되었기 때문에 각각 1안과 2안 중 어떠한 수정안을 채택할 것인가에 대한 의결을 진행한 것이 조금 전 진행한 의결이 되겠습니다. 수정안이 한 가지로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한 찬반기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해당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비표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비표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수정안에 대해 기권하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수정안 집계 결과입니다. 참석인원 97명 중 찬성 91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총학생회 회칙 개정된 다섯번째 의결 안건으로 제 42조 1조 2안 개정에 대한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제안 설명 해주시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자료집 2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총학생회 회칙 제 40조에 의거한 최고집행기구로 우리 학생 사회의 주요한 사업과 정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회원의 알 권리를 위하여 회원이 필요 시 회의록과 기타 증빙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회칙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제 42조 4항, 중앙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해야하며 회원은 필요시 회의록 및 기타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대표자 여러분들의 심의를 요청 드립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해당 내용에 대해 30초간 검토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여드린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비상대책위원장 대리인 김창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비상대책위원장 대리인 김창은입니다. 질의하려는 것은 원안에 대한 진행안이고요, 의사진행 과정에 대한 질의를 해도 될까요? 지금 의결하고 있는데서 수정안 채택/의결 없이 수정안 발의하자마자 이결 원안 대신 의결로 바로 진행하고 있는데, 수정안 채택은 안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네, 수정안이 발의되면은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을 하고 수정안이 가결된 주장의 원안은 자동으로 파기 되겠습니다. 다만 앞서 선례와 같이 수정안이 두 가지가 제안이 되어서 각각 1안, 2안 혹은 그 이상이 된다면 처음 채택을 위한 의결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안 채택을 통해서 한 가지 안이 수정안으로 선정이 되게 된다면 해당 안에 대한 수정안 가결 혹은 부결 등의 절차를 밟게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비상대책위원장 대리인 김창은: 작년 전학대회 때 학운위 때도 수정안이 한 개가 나왔어도 이에 대한 채택 의결을 진행한 후, 수정안 채택이 가결되면 수정안에 대한 최종의결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통과안건에 명시되어있지 않아서요.

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해당 내용에 대해 잠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내용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말씀해주셨던 바와 같이 통과안건에 별도로 명시되어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과거 선례에서 그렇게 진행되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서서 발의되었던 수정안을 채택한 것으로 하고 해당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다시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우선 의사진행 발언 요청자분께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비상대책위원장 대리인 김창은: 다시 한번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우선 앞서서 수정안 채택을 진행할 것으로 하고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을 다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수정안이 발의되어서 채택이 되었던 부분은 2번 의결안건과 4번 의결안건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수정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 수정안을 의결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의결안건으로 돌아가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진행에 있어서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대표자 여러분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고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네, 제14조 2항, 제 17조, 제 19조, 제 37조 일부 개정에 관해서 채택된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의사진행 발언이실까요? 네, 발언권 부여하겠습니다.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 대리인 이현수: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 대리인 이현수입니다. 먼저 의사진행하시는 중에 이렇게 발언 요청드려서 죄송하고요, 표결절차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발언권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아까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에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기존에 해석하셨던 것을 번복하고 이제 수정안을 상정하기 위한 의결과 그렇게 상정된 수정안을 최종적으로 가결 혹은 부결하기 위한 의결, 두 번에 걸쳐야 한다는 새로운 해석을 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의장님께서 기존의 주셨던 해석이 더 옳다고 생각하고는 있어서 지금 드리는 발언이 공식적인 의의제기는 아니고 의장님께 의견 겸 여쭙보는 차원이고요, 의장님께서 제 해석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추가적인 논의절차 없이 의장님께서 해석해주시는대로 전 따를 생각이지만 어쨌든 수정안 상정이라는 것은 기존의 학생자치절차에 따라서 상정된 원안을 견제하는 것이고 그 원안에 대해서 학생자치자들이 수정할 권한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특별히 여기서 수정안을 상정할지 말지를 우리가 표결해야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정안이 제출되면 어쨌든 제출되는 것만으로도 정당한 이 회의의 안건으로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표결하면 곧바로 확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의장님께서 판단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수정안을 이 회의의 안건으로 공식적으로 상정하기 위한 의결과..

부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말씀 중 죄송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2분으로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2분이 초과돼서 발언을 삼가토록 하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짧게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 대리인 이현수: 수정안을 공식적으로 이 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한 의결과 그 상정된 수정안을 최종적으로 채택하기 위한 의결을 두 번을 진행할 것인지 혹은 한 건의 상정이 이미 된 것으로 보고 채택한 의결을 진행할 것인지 의장님께서 판단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발언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원활한 속기록 작성을 위해 속도를 조금만 조절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 대리인 이현수: 죄송합니다.

비상대책위원장 배성호: 네, 우선 의사진행에 있어서의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서 지금과 같이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통과안건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바가 없고 마찬가지로 총학생회 회칙에도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칙 제3조,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거나 해석이 모호한 부분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휴게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 휴게시간 동안 중앙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휴게시간에 앞서서 안내 한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자분들께서는 나가시면서 비표를 스태프분들께 반납해주시고 혹여 퇴장하시는 대표자분들께서는 비표 반납과 함께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재입장시에는 다시 스태프로부터 비표를 수령받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참석 대표자 수의 확인을 위하여 별도 인원 종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

해서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기숙사와 생활관에 생활하시는 대표자분들께서는 1시 이후에 퇴장하실 때 뒤편에 계시는 총학생회 집행부에게 기숙사생이심을 밝히신 후, 행사참가확인서를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사참가확인서를 받으실 때에는 간단한 인적사항을 말씀해주셔야 함을 미리 안내드리겠습니다. 현 시간 21시 01분입니다. 15분간 휴계를 가지고 21시 16분에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중앙운영위원회 대표자분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2:10:00]

의장: 중운위 의결이 늦어져서 휴계시간을 5분을 늘리겠습니다.
21분에 회의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재개에 앞서서 중앙운영위원회분들 사회적 뒤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곧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자분들께서는 착석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 현재 회의 참여자 98명의 의사정족수를 충족해서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이전 의사재개에 있어서 혼란을 드린점 의장으로써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란이 생긴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통보안건에서 6번째 각 안건에 대한 일반적 토의 순서에서 수정안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제안 설명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선례에서 이 과정에서 수정안을 채택하는 과정을 거쳐왔으나 저희는 통과안건 그대로를 해석해서, 채택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정안을 가결을 하면은 원안을 파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대표자분들께서는 해당방식으로 이해하시고 회의에 지금까지 참여해 주신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거 선례와 같이 의견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첫번째 회의 진행 원칙에서, 필요한경우 표결심의를 동의권을 사용을 해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앞서서 진행되었던 애용에 대해서 표결심의로 현재까지 진행되었던 표결 심의에 대해 동의하는 것에 대해 현재까지 대표자분들의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에따라 안건을 수정안이 발의되었던 의결안건 (나)의 두번째 의결안건과 네번째 의결안건에 대해서 표결 심의 동의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에서 두번째 의결안건으로 진행이 되었던 제 14조 의 2항 제 17조, 19조 표결심 의 동의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께서 진행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해당 표결심의 동의하시는 대표자 분들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들은 기표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안건에대해 기권하는 대표자분들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집계 결과입니다 참석인원 95명중 찬성 94명 반대 1명 기권 0명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장: 제 37조 일부 개정안건에 대해서 표결 심의 동의권에 대해 의결 진행하겠습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제 37조 일부 개정안건 동결 심의 의 동의 찬성하는 대표자분들은 비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대표자분 비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표결권이 맞지 않아서 다시한번 재의견을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는 대표자분들은 비표를 머리위로 높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비표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대표자분들은 비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참여하면서 체크했던 인원과 의결권을 행사해주신 인원 이 맞지 않아서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만 재의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대표자분들은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대표자분들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 기권하시는 대표자분들께서는 비표를들어주시기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결과입니다 참석인원 97명중 찬성 9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장: 의결이 지연된 점에서 대표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지금 표결 심의 동의권을 진행한 이유는 앞서서 진행 되었던 의결 결과가 잘못되었거나 혹은 오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회칙이나 통과안건 내의 수정안 발의 후의 채택 여부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에 대해서 명시되어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표결 심의를 통해 앞서 진행되었던 의결을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선례와 같이 수정안 채택 여부를 의결로서 결정하는 것을 조금 전 중앙운영위원회 논의를 통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규칙 제 3조 ???이 부당되지 않았거나 해석이 모호한 부분은 중앙운영위원회 의견을 따른다는 조항에 의거한 것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건에 대해서는 수정안 채택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고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것으로 의결을 진행할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 42조 일부의 개정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총학생회 회칙 제 40조에 의거한 실무 집행기구로 우리 학생 사회의 주요 사업과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원의 알 권리를 위하여 회원이 필요 시 회의록과 기타 증빙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회칙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제 42조 4항 중앙집행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해야하며 회원은 필요시 회의록 및 기타 증빙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대표자 여러분의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해당 내용에 대해 30초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여드린 시간이 모두 지나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대표자 분들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학부 b반 학생회장 : 안녕하세요. 질의하나 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요구에서부터 회원이 필요시 회의록 및 기타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공개까지는 그 절차는 아직 명시되어있지 않은 걸로 확인됩니다. 요구에서부터 공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요구가 일어나면 이제 곧바로 공개가 되는지 내부적인 논의 이후에 공개가 되는지에 대해서 여쭙보고자 합니다.

의장: 해당 내용에 대해서 중앙운영위원회와 논의를 진행하였고요, 중앙집행위원회는 총학생회의 최고 집행기구로서 제휴 사업자를 비롯해서 외부 사기업들과의 계약 내용이라던가 이러한 내용들을 해당 회의에서 다루고 있고, 본부에서 아직까지 공개해달라고 하지 말았던 내용 등에서도 다양한 범위에서 그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의록과 기타 증빙자료를 요구할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그 공개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경영학부 학생회장: 답변 감사합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대표자분들은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의가 없으므로 원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을 원하시는 대표자분들은 비표 들어 발언권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전달 부탁

경영학부 학생회장: 네 경영학부 학생회장 박신화입니다. 현 안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중앙집행위원회가 우리 학교의 최고 집행기구이고 해당 개정의 취지에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중앙운영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와 중앙집행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에는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중앙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은 지금껏 중대중심 사이트를 통해 업로드 되어왔지만,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은 업로드 되어왔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가 회칙에 명시되어 있듯이 중앙운영위원회는 업무 및 권한이 심의가 주인 반면에 중앙집행위원회는 집행 위주라는 업무의 차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집행위원회의 회의의 결과로 사업 및 예산이 진행되고 사업 및 예산 진행에 대한 결과가 지금과 같이 확대운영위원회나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통해 보고되고 있습니다. 집행위의 특성 상 그 과정이 공개가 되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집행의 결과가 확대운영위원회나 전학대회로 공개되기 때문에 충분히 회원이 알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과정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 과한 조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네 감사합니다. 찬반토론 의사를 밝히신 대표자가 계십니다. 해당 대표자께서 반대 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찬성 의사를 밝히실 대표자분이 계시면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없으시면 다음으로 수정안 제출여부에 대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대표자분은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경영학부 A반 부학생회장 오윤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영학부 A반 부학생회장 오윤서입니다. 제 7장 제 42조 4항에는 회원은 필요시 기타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회원의 권리라고 생각되어서 회의록 작성 및 회원으로부터 요구받은 기타 증빙자료 제공의 의무라고 수정안을 발의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집행위원회는 회의록 작성 및 회원으로부터 요구받은 기타 증빙자료 제공

네 이상입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네 해당 수정안에 대해 질의 및 답변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아 아닙니다. 중앙운영위원회의 조금 전 회의 진행방식 변경에 따라서 해당 수정안을 채택할 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의결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수정안 채택 의결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해당 수정안을 채택한다 의결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수정안 채택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수정안 채택에 기권하시는 분들은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집계결과입니다 78명 중 찬성 32명 반대 37명 기권 29명으로 해당 수정안 채택이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장: 수정안 채택이 부결됨에 따라 원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원안에 대해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 채택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표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안건 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들은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표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기권하시는 대표자분들은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비표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집계 결과입니다.

도시부동산학과 학생회장 홍성재: 의사진행 발언 해도 될까요?

의장 : 표결발표이후에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 집계결과 입니다. 참석인원이 99명 중 찬성 64명 반대 20명 기권 15명으로 해당 안건 이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도시부동산학과 학생회장: 이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싶었던 것이 저희가 수정안이 부결되고 나서 원안에 대한 찬반을 하기전에 수정안이 더 있는지를 좀 먼저 여쭙본 후에 진행하셨으면 했던 생각이 있어서 혹시 앞으로도 이렇게 수정안에 대해서 더 질문을 해주신 다음에 원안에 대해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의사진행에 있어서 순서는 최초진행자께서 수정안 발의 여부를 여쭙보셨을 때 그 때 수정안이 여러가지가 발의가 된다면 여러가지 발의된 수정안들 중에서 채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러가지 안이 발의가 되었다면 그 중 한 가지 안을 채택을 하고 해당 수정안에 대해 가결 부결 등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의사가 있으신 분은 진행자께서 수정안 제출 여부를 확인하셨을 때 제출 의사를

밝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이신가요?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 네 사회과학대학 부비상대책위원장 김어진입니다. 앞서 도시계획부동산학과 회장님이 말씀해주셨던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 앞서 의결 진행하실때 질문 받고 바로 채택으로 넘어가셨는데, 질문을 수정안을 받으시고 한 번 더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의장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권

발언권 부여

예술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예술대학 비상대책위원장 xxx입니다. 방금 가결 맞죠? 부결이라고 들어서

부비상대책위원장: 회칙에 관련된 의결은 참석 대표자의 3분의 2로 의결을 하기 때문에 99명중 찬성 6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술대학 비상대책위원회: 제가 착각했습니다.

의장 : 제 51조 일부 개정 안건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집 30페이지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동아리 연합회는 우리 학교 모든 중앙동아리의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 회칙과 같이 ‘모든 동아리’로 그 구성을 명시할 경우 학과 부 소속 동아리까지 포함해야하는 해석의 모호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동아리를 모든 중앙동아리로 수정하여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대표자 여러분들의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해당 내용에 대해 30초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30초가 지났습니다. 해당안건에 대해 질의및 발언 하겠습니다. 비표를 들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의견 없으므로 찬반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비표를 들고 발언권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정안에 대한 찬성하시는 대표자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없으므로 바로 표결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대표자들은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대표자들은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기권하시는 대표자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집계 결과 찬성100명,반대0명,기권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 총학생회 회칙 개정 7번째 안건으로 제 55조 일부 개정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

의장 : 자료집 31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는 각각의 특성에 맞는 업무를 분담하여 연속성있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총학생회장의 정책과 사업을 주요하게 집행하기 때문에 중앙집행위원회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55조 1항에서 각 위원회를 현행 회칙과 같이 총학생회장의 산하기구로 명시할 경우 고유의 역할과 업무의 특성이 총학생회장이 바깥에 따라 변경될 우려가 있습니다. 총학생회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총학생회 산하 기구로 표현을 수정하여 고유이 역할을 존중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의미가 위원장 선출에 반영되도록 이하 총학생회장이 중운위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를 총학생회장이 추천한 자를 중운위의 동의를 받아 인준한다로 표현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대표자 여러분들의 심의를 요청합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 해당내용에 대해 30초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여드린 시간이 모두 지나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대표자들은 비표를 들고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전달 부탁

경영b 부학생회장 : 경영학과 B반 부학생회장 이재원입니다. 제가 인준하다라는 뜻을 정확하게 몰라서 찾아본 결과 입법부가 법률에 지정된 공무원의 임명과 행정부의 행정 행위를 인정하다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지금 총학생회장이 이제 위원장을 임명할 때 사용하는 거로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인준하다 말고 임명하다로 유지를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회칙의 대부분의, 모든 조항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해당 인사를 임명권자가 추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인준은 총학생회장이 임명한 자에 대해서 해당 인원에 대해 동의를 표해서 임명을 완료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명을 완료하는 것에 대한 용어를 인준으로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인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 추가적인 질의 없으면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철학과 학생회장: 철학과 학생회장 도규호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들어보면 동의와 인준은 같은 의미로 해석되는데 저도 방금 질문 해주셨던 분의 의견을 해서 동의를 하면 임명하다가 더 적절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용어 단어에 대한 의미의 오해에서 벌어진 일인 것 같은데요. 인준이라는 것은 해당 인사에 대한 인사를 그 직책에 정식으로 임명하는 것을 완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서 총학생회장이 임명한다는 것은 추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제 41조 중앙집행위원회 회칙을 명시하고 있는 제 41조에서도 각 집행국장을 총학생회장이 임명한 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인준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인준은 임명보다 더 명확한 의미로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 추가적인 질의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반토론 희망하시는 분은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희망 없기 때문에 수정안 제출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분은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호대학 a반 대표: 안녕하세요? 간호대학 A반 대표 반주혜입니다. 저는 정확한 명칭 사용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수정안에도 그렇고 현행 구조에도 그렇고 중운위로 표기되어 있는데 제 6장 중앙운영위원회, 제 35조 위치에 그다음 이하 중운위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칙에는 중운위가 아닌 중앙운영위원회라는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중앙운영위원회로 수정안을 발의하고 싶습니다. 추가로 제36조 4항에도 중운위로 표기되어 있어서 다음 전학대회 때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수정안 제출 의사를 밝히신 분이 계셔서 발언권 부여하겠습니다. 가급적 발언을 천천히 발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리학과 학생회장 김명균 : 안녕하세요 물리학과 학생회장 김명균입니다. 이전에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제41조 2항에도 동일한 맥락의 내용이 있어서 동일한 맥락의 내용이면 내용의 형태도 동일하게 통일시키는게 좋을것 같아서 저는 수정한 발의를 총학생회장이 임명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

의장 : 발언자의 소속과 직책을 다시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물리학과 학생회장 김명균 : 물리학과 학생회장 김명균입니다.

의장 :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수정안 제출 의사를 밝히신 분 계시지 않았나요? 추가 수정안 제출 의사 없으신가요? 발언권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앞서 앞에 계신 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광고홍보학과 학생회장 김호선 : 저는 광고홍보학과 학생회장 김호선이고요. 저기 나와있는 수정안에서 아까 중운위라는 단어를 중앙운영위원회로 정확하게 명칭을 표기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에 추가로 좀 의견이 있어가지고, 회칙을 보면은 이 부분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중운위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몇가지가 있어 가지고, 그거에 명칭을 정확하게 수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런것들을 하나하나씩 찾아가지고 다 수정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아서 차라리 6장 35조 중앙운영위원회 옆에 이하 중운위라고 줄여서 말하는 것을 추가로 소개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수정안을 드립니다.

의장 :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대표자들에 동의를 하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해당 내용은 추가안건으로 진행되어야하는 부분이기때문에 현 안건으로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추가 수정안이 있으면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경영학부 b반 대표 이재원 : 경영학부 B반 대표 이재원입니다. 아까전에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인준이라는 단어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임명을 완료 한다고 풀어써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수정안으로 발의합니다.

의장 : 그러면 정리하면 제 55조 2항에 대한 내용을 총학생회장이 추천한 자를 중운위의 동의를 받아 임명을 완료한다로 수정안 제출하시는게 맞으시죠?

현재 제출된 제출안이 3가지가 있습니다.

네 의사진행발언 도와드리겠습니다.

사회과학대학 부비상대책위원장 김어진 : 사회과학대학 부비상대책위원장 김어진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수정안을 한페이지 한페이지 작성하는것보다 한페이지에 수정안 1,2,3으로 작성해주시는게 여기 있는 대표자 분들이 모든 수정안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비상대책위원장: 담당 스텝분께서 해당 안을 정리하고 있기에 잠시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 추가 수정안 제출 의사가 있으신 대표 분은 비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제출하셨던 수정안 철회를 하실 대표자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수정안 추가와 철회 의사가 없기 때문에 세가지 수정안이 제출 된 것으로 하고 수정안 채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각각 1,2,3안과 기권으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비상대책위원장 : 수정안 채택 1안에 동의하신 대표자는 비표를 들어주길 바랍니다.

비표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수정안 채택 2안에 동의하신 대표자는 비표를 들어주길 바랍니다.

비표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수정안 3안에 동의하신 대표자는 비표를 들어주길 바랍니다.

비표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수정안채택에 기권하시는 대표자는 비표를 들어주길 바랍니다.

비표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집계 결과 참석인원 100명중 1안 69명 2안 9명 3안 16명으로 1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 채택된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택된 수정안 1안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대표자는 비표로 발언권을 얻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희망하시는는 대표자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길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정안에 대한 의결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대표자는 비표를 들어주길 바랍니다,

비표 조금만 높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대표자는 비표를 들어주길 바랍니다.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집계결과입니다. 100명 중 찬성 96 반대 1명 기권 3명 가결되었음.

부비상대책위원장 : 다음으로 총학생회 회칙 8번째 개정안으로 15장 일부개정 안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제안 설명해주시겠습니다.

의장 : 자료집 32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장 과 부총학생회장이 선출되지 않았을 때 중운위에 준하여 구성되는 위원회입니다. 우리 학생 사회 전반에 걸쳐 중요한 의사결정과 집행 당엔(?????)는 중앙운영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와 같이 중앙을 거쳐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앙비상대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대표자 여러분들의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

중앙을 붙여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있음. 대표자 여러분들의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 해당 내용에 대해 30초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여드린 시간이 지나 해당 안건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대표자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길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찬반토론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고자 하는 대표자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길 바랍니다.

수정안 제출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정안 제출하고자 하는 대표자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길 바랍니다.

제출된 수정안이 없는 관계로 원안에 대해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대표자께서는 비표 들어주길 바랍니다.

내려주길 바랍니다.

반대하는 대표자께서는 비표 들어주길 바랍니다.

내려주길 바랍니다.

기권하는 대표자께서는 비표 들어주길 바랍니다.

[03:30:00]

부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집계 결과입니다. 참석 인원 93명 중 찬성 88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해당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총학생회칙 개정에 9번째 의결 안건으로 제 16장 1부 개정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제안 설명 해주시겠습니다.

의장 배성호: 네. 자료집 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앙비상대책위원으로 명칭 변경과 함께 비상대책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회 명칭도 각각 중앙비상대책위원장과 중앙비상대책위원으로의 명칭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74조에서 오타자가 존재하여 30조를 제 30조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대표자 여러분들의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해당 내용에 대해 ~ 추가 안건으로 하겠습니다.

네. 부여드린 시간이 모두 지나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찬반 의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을 희망하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다음으로 수정안 제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주시길 바랍니다.

제출된 수정안이 없는 관계로 원안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대표자분들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표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표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기권하는 대표자분은 비표를 들어, 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집계결과입니다. 참석인원 92명 중 찬성 91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총학생회 회칙 개정 10번째 안건으로, 의결 안건으로 제 17장 1부 개정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제안 설명 해주시겠습니다.

의장 배성호: 네. 자료집 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78조 2항, 제79조 1항에 각각 6장과 78조 중 오탈자가 존재하여 제6장과 제78조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대표자분들의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해당 안건에 대해 30초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여드린 시간이 모두 지나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므로 다음으로 원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을 희망하고자 하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다음으로 수정안 제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주시길 바랍니다.

마이크 좀 전달 부탁드립니다.

심리학과 학생회장 임미래: 네 심리학과 학생회장 임미래입니다. 원안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나 2호 한글에 있어서 총투표라는 말이 전부 띄어쓰기가 되지 않은 형태인데 제 17장에 대해서는 '총' 띄우고 '투표'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 '총투표'라고 띄어쓰지 않고 수정하는 방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성호: 수정안을 확인하면 장명을 붙여쓰자는 말씀이신가요? 네. 수정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수정안 채택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추가적인 수정안 채택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수정안 채택에 동의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수정안 채택에 대해 반대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수정안 채택에 기권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집계 결과입니다. 참석 인원 93명 중 찬성 9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해당 수정안은 채택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수정안의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없으시면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희망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바로 수정안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수정안에 대해 기권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집계 결과입니다. 참석 인원 92명 중 찬성 9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해당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다음 안건으로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중앙대 학생회칙 개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배성호: 의사진행 발언 하신다고 합니다.

?: 총학생회 회칙 개정과 관련해서 추가 수정 안건 상정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의장 배성호: 네. 추가 안건의 추가 상정에 대해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안건이 어떤 부분에 대해선지 먼저 말씀해주시거나 안건명을 정확히 말씀해주시면.

?: 우선 안건, 추가 안건 상정에 대한 이우와 배경 먼저 설명해드리고 안건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회칙은 중앙대학교 자치활동에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회칙이고, 우리 학생 과에 있어 큰 의미가 있는 회칙입니다. 그러기에 기본적인 오탈자나 틀에 있어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현재 총학생회칙을 보면 각 구성들이, 통일되지 않은 구성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료집 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제 1장을 보면 부 뒤에 있는 괄호, 즉 명칭 목적 회원에 괄호들이 찍어쓰기가 되어있지만 자료집 16페이지 8장과 9장, 10장을 확인해보면 괄호에 대해서 붙여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료집 1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제14조에 2가 붙여쓰기가 되어있지만 자료집 1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제28조에 2항, 제28조에 3항은 찍어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통일을 하는 추가 안건을 상정하고 싶습니다.

의장 배성호: 안건을 찍어쓰기 수정으로 상정하시는 건가요?

?: ‘총학생회 틀에 대한 통일안’라는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회칙 양식 통일안’으로 할게요. 그런데 이제 또 우려가 되는 점이 지금 보면 한 두가지 점이 아니라서 통일되지 않은 부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 다음 전학 대회나 학운위에서 준비해서 좀 더 하셔서 제1장 6조를 보면 본회의 법률 내용과 관련하여 내부 등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법률 내부 외부의 자문을 받아 통일안에 대해서 오늘 회의가 아니더라도 추후에 회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배성호: 네. 찬반 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찬반 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자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총학생회 회칙이 당연히 학생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회칙이기도 하고 우리 학생사회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해주셨던 대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오탈자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대표자 회의 때마다 지속적으로 오탈자 개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발견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해당 부분들을, 발견을 수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누락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된 상태로 안건이 된 것이 아니라 즉석적으로 의결이 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선 확대운영위원회의 회의록에 남기고 다음 대표자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일괄적으로 상정하는 것이 어떤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 네. 동의합니다.

의장 배성호: 그럼 추가 안건으로 처리에 따라 준비되어 있는 다음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다음 안건으로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중앙대 학생회칙 개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제안 설명 해주시겠습니다.

의장 배성호: 네. 2022학년도 2학기 확대운영위원회의 성평등위원회 폐지 이후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중앙대 학생회칙 내 규정되어있는 성평등위원회의 역할을 다른 기구로 대체 및 수정하고자 합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반성폭력 회칙 내 첫 번째 의결 안건으로 제7조 일부 개정에 관한 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제안 설명 해주시겠습니다.

의장 배성호: 자료집 4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성평등 위원회 폐지가 가결되고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중앙대 회칙 내 규정되어 있는 성평등위원회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7조 3항 이후에 총학생회 산하 성평등위원회를 인권관련자치기구 혹은 총학생회 내로 수정하여 자문의 대상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대표자 여러분들의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 해당 내용에 대해 30초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여드린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제 7조 일부 개정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 얻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부동산학과 학생회장 홍성재: 혹시 여기 인권관련 자치 기구라는 것이 어떠한 자치기구들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의장 배성호: 네. 폭넓은 의미에서 이것들을 자치 기구라는 단어로 담게 되었구요. 학과 내에서 학과 자치에 따라서 성평등을 위해 존재하는 단위도 있고 또 기타 여러 인권 관련 자치기구가 존재하는 단위도 있습니다. 총학생회 역시 각 위원회 내에 인권을 담당하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치기구들을 통틀어서 인권 자치 기구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추가적인 질의 없으시면 원안에 대한 찬반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을 희망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주시길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정안 제출 여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수정안이 없는 관계로 원안에 대한 의결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기권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집계 결과입니다. 참석 인원 86명 중 찬성 8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해당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다음으로 반성폭력 회칙 내 두 번째 의결 안건으로 제10조 일부 개정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의장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의장 배성호: 자료집 42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성평등위원회 폐지가 가결되고,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제정된 회칙에 재정되어 있는 성평등위원회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 10조 4항에 총학생회 성평등위원회를 총학생회로 수정하여 신고의 대상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대표자 여러분의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 해당안건에 대해 30초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여드린 시간이 지나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 얻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경제학부 부학생회장 양유영: 현재처럼 총학생회 대신 어디에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하여 여쭙습니다.

의장 배성호: 해당 단어를 수정하게 된 계기는 조항 전체적으로 보게 되시면 제10조 4항을 보시면 학과 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 동아리 연합회, 총학생회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을 해석하기로는, 우리 학생 사회 내 모든 곳에서 신고가 가능하고 이를 연대하기 위한 어떠한 정치적인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학부 부학생회장 양유영: 감사합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마이크 전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쪽으로 전달 부탁드립니다.

경영학부 B반 부학생회장 이재원: 네, 안녕하세요. 경영학부 B반 부학생회장 이재원입니다. 제가 지금 조항 몇 개를 해석한 바가 정확한지 여쭙보고 싶은데요. 일단 10조 1항에 신고는 피해자 본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대리한 피해자의 대리인, 피해 상황을 목격한 주변인이 증언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나와있고, 같은 조에 4항을 보면 여러 가지 단체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의 최종 접수자는 사건 발생 단위의 대표자가 책임을 갖는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를 잠깐 봐주시면, 39페이지에 6번째 문장에 신고를 접수할 지의 여부는 당사자들간의 협의 하에 최종 접수자가 결정한 바, 그리고 그 중간 부분에 해당 사건을 다룰 상위기관에 조속히 사건을 이관하는 건 사건 당사자와 논의를 거친다 이런 식으로 나와있는데요. 그렇다면 피해자 당사자가 최종 신고 접수자, 아까 말했던 총학생회나 동아리 연합회, 그들의 협조나 관여 없이는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인지를 여쭙보고 싶습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답변에 앞서서 발언하시는 대표자분들은 속기록 원활한 작성을 위해서 조금 속도를 조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3:56:00]

경영학부 B반 부학생회장 이재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배성호: 학생 사회에서 회칙이 개정된 배경은, ~~은 우리 학생 사회 내 성평등 문화가 확산되고 더 올바른 성평등 이해와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결코 최종 접수자가 피의자의 어떤 신고를 막기 위해서 관련된 조항이 생성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종 접수자를 각 단위의 대표자로 하는 이유는, 우리 학생 사회 내에서 대표자가 어떠한 책임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고자로 하여금 그 부담을 함께하거라라는 의미를 담기 위해서 이와 같이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신고를 접수할지 여부는 당사자들과의 협의나 최종 접수자가 결정한다는 것은 최종 접수자가 결정한다는 포인트를 주기보다는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당사자들이 원하는 올바른 방향으로서 최종 접수자가 결정을 하도록 해라라는 회칙을 해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학부 부학생회장 양유영: 네 감사합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추가적인 질의가 없으면 원안에 대한 찬반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을 희망하시고자 하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수정안 제출여부 확인하겠습니다. 수정안 제출하고자하는 대표자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 얻어주시길 바랍니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경영학부 B반 부학생회장 이재원: 아까 전에 위원장님께서 해당 조항이 있는 이유는 그 단위의 대표자가 어쨌거나 피해자와 책임을 함께하라는 의도를 담았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런 조항들만으로는 그 속에 있는 의도를 파악하는 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정부적인 의견일 수는 있지만 단위 대표자의 자율성 단위 대표자의 결정이 아니라 그 피해 당사자의 의사가 더 많이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피해 당사자의 자율성이 단위 대표자의 결정보다 앞선다는 조항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의장 배성호: 어떤 조항을 어디에 어떻게 신설할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학부 B반 부학생회장 이재원: 어.. 아직 구체적인 위치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데 만약 그렇다면 해당 절차 결정에 5번 조항 추가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자의 자율성을 관위 대표자의 결정에 앞선다라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네 수정 관행이었기 때문에 수정 채택에 대한 의결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다 확인이 되었나요? 저희가 현재 제10조에 대한 개정 건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던 내용은 제11조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해당 안건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신가요?

경영학부 D반 학생회장 홍지원: 어, 네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데, 회칙 관련해서..

의장: 네 의사발언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학부 D반 학생회장 홍지원: 제가 이제 회칙을 쭉 여러번 읽어본 결과, 단어상 용어상의 약간 모호함, 헷갈리는 게 있어서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35쪽에 제2조 14항, 10항 보시면 최종 접수인이라는 워딩이 나오고요, 38쪽 아래쪽에 보면 공개 범위 가장 마지막 오른쪽 보시면은 최종 접수인이라는 말 또 나오니다. 그런데 39쪽 동그라미 3번 회칙상 최종 접수자라는 말이 나오고 또 이외에도 최종 접수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구체적인 절차 과정에 따라서 워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정확히 어떤 이 프로세스 증거로 워딩이 달라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시 부탁드립니다.

의장: 네, 우선 질의 대표 시간은 아닙니다만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요. 우선 제가 이 회칙을 제정할 당시에 어떤 학생사회에 대해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상황은 아니라서 저도 당시의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회칙 내에 최종 접수인과 최종 접수자는 같은 맥락의 단어로서 잡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로 통일되었어야 했으나 그렇지 못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수정안은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앞서 말씀주셨던 수정안에서 제10조에 대한 것이 아니라 11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정안 발의 의사는 없는 것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경영학부 B반 부학생회장 이재원: 어 그 사실 그 어떤 조에 해당되는 내용이던 간에 저는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그냥 10조 내에서만 수정 의사를 밝힐 수 있다면 저는 10조에 7항에 추가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8항을 추가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배성호: 8항에 어떻게 신설할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학부 B반 부학생회장 이재원: 8항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네, 피해자의 자율성이 단위 대표자의 의사를 우선한다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배성호: 네 그러면 답변 내용을 정리하면, 피해자의 자율성이, 아 정정하겠습니다. 피해 당사자의 자율성이 최종 접수인의 의사보다 우선시한다고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경영학부 B반 부학생회장 이재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배성호: 최종 접수인의..

의장 배성호: 네 어 비표들으신 분 의사 진행 발언이신가요?

간호대학 B반 비상대책위원장 황현 : 수정안 발언입니다.

의장 배성호: 네 수정안 진행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간호대학 D반 비상대책위원장 민채원: 10조 5항 1조 4항에 보면 최종 접수자가 사건 발생 전 대표자라고 한다는 말이 있는데 대표자가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단서 조항으로 ‘단, 피해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피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최종 접수인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한 문장을 더 추가했으면..

의장 배성호: 네 별도 수정안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성호: 현재 두 가지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한 가지 수정안은 제10조 8항을 추가하는 조항이고
어 부분이고, 나머지는 제10조 4항에 단서 조항을 다는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수정안 제출 의
사가 있으신 대표자분들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언권 부여하겠습니다.

경영학부 D반 학생회장 홍지완: 제1장 총칙, 제2조 14항에 의거하여 최종 접수인이라는 워딩을 일괄적으
로 전 회칙에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의장 배성호: 제10조 개정건을 진행중이기 때문에 본 회칙 전반에 걸쳐서 안건 별도 상정이 필요하겠습
니다.

경영학부 D반 학생회장 홍지완: 네, 그럼 추후에 별도 상정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배성호: 네 알겠습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추가적인 상정 부분이 있다면 비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다면 현재
까지 나온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수정안 채택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1안에 동의하시는 대표
자분들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비표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의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결 진행 중에는 대표
자 분들의 이동을 좀 자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2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대표자분들은 비
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과학대학 부비상대책위원장 김어진: 표결 진행되기 전에 의사 진행 발언 해도 될까요?

의장 배성호: 네.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학대학 부비상대책위원장 김어진: 수정안을 채택하기 전에, 두 가지가 만약 다른 데서 나왔다면 하
나를 채택하고 찬반 토론을 진행하고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현재는 수
정안 1.2에 대해서 채택을 모두 진행하고 하는 방식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이 진행방식이 맞는지 질문 드
립니다.

의장 배성호: 그렇게 되면 두 가지 모두에 동의하시면 별도의 세 번째 수정안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모두를 통합하고 있는 세 번째 수정안을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진행 상황에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각각 표결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제출 의사부터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마이크 전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영학부 학생회장 박신화: 현재 제시된 첫 번째 수정안과 두 번째 수정안을 합체한 세 번째 수정안에 대
해 발의드리겠습니다.

의장 배성호: 네 정리하면, 첫 번째는 제10조 8항을 신설하는 수정안이 되겠고, 두 번째 수정안은 제4항에
단서조항 추가하는 수정안이 되겠고. 세 번째 수정안은 제4항에 단서조항 추가와 제8항의 신설을 함께하

는 조향이 되겠습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네 추가적인 수정안 없으시다면 바로 채택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배성호: 네 발언권 부여하겠습니다.

간호대학 학생회장 김예림: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수정안 1, 2, 수정안 3이 나왔으니 1,2안 의사를 물어보고 표결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의장 배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제출한 수정안 파기 혹은 변동의 의사가 있으신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자 분들께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간호대학 B반 비상대책위원장 황현: 수정안 3안에도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수정안 파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 수 없음): 저도 동의합니다.

의장 배성호: 네 알겠습니다. 그럼 수정안이 1개로 정해진 것 같아 해당 수정안에 대한 채택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해당 수정안 채택에 동의하시는 대표자분들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표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수정안 채택에 반대하시는 대표자분들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표를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수정안 채택에 기권하시는 대표자분들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높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비표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집계 결과입니다. 참석 인원 85명 중 찬성 81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해당 수정안은 채택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채택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대표자분은 비표를 들어 발언권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경영학부 부학생회장 명수현: 질의는 아니고 지금 표기에 있어서 피해당사자의 띄어쓰기를 지금 수정해 기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4항 부분 말씀하시는건가요?

경영학부: 아뇨 지금 수정해주셨어요.

의장 배성호: 아무래도 되어 있긴 했습니다만 내용이 사실 ~(안들림) 이라서 수정안 발의자가 동의하시면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학부 학생회장 박신화: 동의합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추가적인 질의 사항 없으시면 찬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배성호: 잠시만요. 네, 발언권 부여하겠습니다.

에너지시스템공학부 학생회장 이성화: 현재 수정안 채택 관련해서 질문드릴 게 있는데, 단 피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최종 접수인을 변경할 수 있다는 수정안 중에 해당 내용이 있습니다. 어, 최종 접수인이라는 존재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사건이 발생한 단위의 책임자로서 그 사건을 책임져야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최종 접수인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그 해당 단위와 상관이 없는 사람 또한 최종 접수인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내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영학부 학생회장 박신화: 질의에 대해 답변하자면 4항에 대한 추가 항목으로 ‘단 피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최종 접수인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수정안을 반의하게 되었는데요. 그 추가 접수 이전에 최종 접수인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고 추가적인 단서로 ‘단 피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최종 접수인을 변경할 수 있다’가 추가 단서로 붙어있는 거라 해석이 남용될 여지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에 학과 학생회 단과대 학생회 동아리연합회 총학생회로 범위가 정해져 있고 그 범위에 대한 명칭을 최종 접수인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에너지시스템공학부 학생회장: 추가적인 질의 가능한가요?

의장: 네 현장 추가 질의 기회가 지금 아직 1회 남아 있기 때문에 가급적 동일인에 대한 발언을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질의자가 없으면 발언권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수정안에 대해 추가 질의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발언권 부여하겠습니다.

통일공대 부학생회장 정요한: 어.. 사소한 질문인데, 최종 접수인이라는 단어가 4항에서는 띄어쓰기가 되어있고 8항에서는 안되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분께 질문드려야 할진 정확히 판단이 안되지만 검토를 요청드리고자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에너지시스템공학부 학생회장 이성환: 어, 저 표현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10조가 아닌 다른 조에는 어떻게 표현 되어있는지 확인해서 띄어쓰기 통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배성호: 네 어 그 해당 단어를 명시하고 있는 것은 제2조 정의에 따르는 것이 적합해 보입니다. 2조 정의 1항의 14호를 살펴보면 최종 접수인을 붙여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회칙내 띄어쓰기가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타자로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 대표자분께서는 비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발언 기회가 3인이 모두 소진되었기 때문에 추가 질의 위해서는 의결을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추가질의 희망하시는 분 한 분 계시기 때문에 한 분에 대한 추가 질의 의결 진행하겠습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네 해당 안건에 대해 한 분 더 추가 질의한다에 대한 의결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대표자분은 비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반대하시는 대표자분은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기권하시는 대표자분들께서는 비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집계 결과입니다. 참석 87명 중 찬성 81명 반대 0명 기권 6명으로, 해당되는 1인에게 추가 질의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배성호: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에너지시스템공학부 학생회장 이성화: 먼저, 수정안 '단 피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최종 접수인을 변경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수정 발의해주신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제10조 4항을 보았을 때 한 가지 예로 들겠습니다. 만약 어떤 특정과 학생회 안에서 해당 불미스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당 단위의 대표자는 그 학과 학생회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 단위의 단과대학 학생회장, 또한 그 상급 단위의 대표자도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앞에서 이제 경영학부 대표자분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앞에 내용에 추가적인 것이기 때문에 포함한다고 받아들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미 최종 접수자라는 것이 한 명을 지목하는 게 아니라 최종 접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학과 학생회장, 그 학과 학생회장이 안된다면 단과대 학생회장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저 부분에 대하여 피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최종 접수인을 변경할 수 있다 보다는 사건 발생 단위의, 사건 발생의 상급 단위, 혹은 하급 단위의 대표자로 한다가 오히려 저 부분에 있어서 적합하다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4:22:50]

부비상대책위원장: 마이크 전달 부탁.

[04:23:05]

경영학부 학생회장: 이해한건지 모르겠는데 상위, 하위단위라는 말씀하신 게 최종 접수자에 대해 특정하게 명확히 하는 조항을 추가하면 좋겠다는 얘기인가요?

에너지시스템공학부 학생회장 이성환: 단순히 최종접수인이라고 지목을 하면 해당 단위와 연관 없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질문 드렸습니다.

경영학부 학생회장: 두 번째 조항을 추가한 배경이 명시되어 있는데 어느 하나로 특정하게 되면 신고 당사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 명시하게 되면, 예를 들어 동아리에서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하면 동아리 대표자에게만 알리고 싶었는데 학과 학생회장이 지목하게 된다면 숨기고 싶었는데 학과학생회장이 최종 접수자가 될수도 있기 때문에 신고자분의 자율성을 존중한 규칙을 추가한 것.

에너지시스템공학부 학생회장: 그 부분에 있어 동의합니다만 5항, 3항을 보았을 때 누설하면 안된다는 의무와 외면하면 안된다는 의무에 있어 그렇게 행동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학칙을 거슬렀기 때문에 그 대표자에 대해 처분해야 하지, 명시하는 것 보다는 이 항목에 대해서는 다른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의장: 3인이하, 5분이하 으로 한정하여 더 이상 발언 기회 드리지 않도록 하겠음.

부비상대책위원장: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 토론 진행하겠음. 찬반 토론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표자분들은 비표를 들어 발언권 얻어주세요. 마이크 전달 부탁.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대리 이현수 : 오랜 시간동안 대표자들이 모여 성평등과 반성폭력에 대해 토론하신 점 감사드립니다. 제8항에 대해 토론하고자 함. 8항에서 피해자에 최종 접수자보다 앞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발의해주신 것 같음. 취지에 동감하나 피해 당사자의 자유성을 최우선으로 선언하는 것이 꼭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아 우려가 됨. 예를 들자면 10여년 전 성폭력 범죄가 기존에 신고되. 피해자가 고소해야 신고가 이뤄지고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 하면 전부 멈추는 범죄였는데 성폭력 범죄를 신고죄에서 빼게 되었음. 피해자가 혹시나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국가 공동체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빠짐.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음. 피해 당사자 당위성 중요하다 생각하나제 12조 3항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설명하고 있다 생각. 피해자 중심주의 당연히 가장 중요함. 하지만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넘어 반드시 최종 접수인의 의사보다 우선시한다 하게 되면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결과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됨. 과거 신고죄일 때 책임을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몰려 비난했던 것처럼 결과에 대한 책임은 공동체가 져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릴까봐 걱정. 제8항 신설 대신 12조 4항 1호 과목을 좀 더 존중하여 학과 내 성폭력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되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사건의 책임은 학생 대표자,최종 접수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하면 될 듯.

의장: 찬성대표자, 반대대표자를 지목한 이후에 찬반토론을 진행하게 되어있음. 찬성 의사가 있으신 대표자분 비표 들어주시면 발언권 드리겠음.
없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찬반 토론이 더이상 없으므로 수정안 제출 확인하겠음.

의장: 수정안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표결 진행 하겠습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해당 수정안 찬성하시는 분 비표 들어주세요.

비표 내려주시면 됩니다.

해당 수정안 반대하시는 분 비표 들어주세요.

비표 내려주시면 됩니다

해당 수정안 기권하시는 분 비표 들어주세요.

비표 내려주시면 됩니다

집계 완료.

참석 85명 중 찬성 30명 반대 28명 기권 27명으로 해당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이신가요? 발언권 부여하겠습니다.

통일공대 부학생회장 정요한: 회의가 재개된 지 2시간이 되어갑니다. 이번 안건 종료되고 휴회하시는 것이 어떤지 제안.

의장: 의결 안건이 여전히 두 개 남아있으나 회칙과 결의에 대한 내용이라 시간이 걸릴 듯. 휴회 갖고 나서 나머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 의결 활동이 진행된 이후에 휴회 갖는 것이 어떤지.

부비상대책위원장: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한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학부 b반 부학생회장 이재원: 아까 4항에 단 조항이랑 8항이랑 반대 의견 제시하신 게 수정안 아닌가요? 제 착각인지 모르겠으나 아까 4항 신설한 게 부결되어 원안이 된 것이라 생각. 방금 부결된 수정안이 반대 의견에 대한 수정안이라 생각하였거든요.

의장: 원안이 나오고 나서 해당 안에 대한 수정안이 나오고 해당 수정안 채택할 지 의결합니다. 해당 수정안이 채택되면 해당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고 찬반토론을 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어 원안에 대해 의결 진행하는 것입니다.

경영학부 b반 부학생회장 이재원: 만약 반복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으나 앞에서 들었을 때 찬반토론이라 언급하셨고 진행자분께서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이라 하셔서 지금 투표한 게 아까전에 사과대 대리인분께서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 투표한 것인데 다른분들도 저처럼 착각한분이 있을거라 생각됨.

의장: 찬반 토론은 의결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미 통과안건으로 수정안 가결할지 말지를 의결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에 대해 의결하는 것입니다.

경영학부 b반 부학생회장 :네 알겠습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다시 원안에 대한 의결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대해 찬성하시는 분 비표 들어주세요.

비표 내려주시면 됩니다.

해당 안건에대해 반대하시는 분 비표 들어주세요.

비표 내려주시면 됩니다

해당 안건에대해 기권하시는 분 비표 들어주세요.

비표 내려주시면 됩니다

집계 완료. 참여84명중 찬성 73명 반대 1 명 기권 10명으로 해당안건은 가결되었음

의장: 앞서 의사진행에 따라서 휴계를 가지도록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5분간 휴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대표자분들께서는 퇴장시 비표를 반납해주시고 퇴장시 사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3:44 ~~ 15분 간 휴계

의장: 휴계시간이 곧 종료됩니다 대표자 여러분들께서는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여러분들께서는 착석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표자여러분들의 착석이 완료되는대로 현재 정족수확인을 진행하겠습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의결권 스태프분들은 현재 내부에 참석하고있는 대표자 분들의 수를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표자 75명으로 바로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어서 다음 안건인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전학대회 시행세칙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43 페이지를 확인 총학생회회칙 24조 3항에서 현행의 경우 통과안건이 해당 세칙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지만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원활하고 민주적인 회의가 가능하도록 하려 합니다. 대표자 여러분의 심의를 요청합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해당 내용에대해 1분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여드린 시간이 모두 초과되었습니다 전학대회 시행에대한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대표자 분께서는 비표 들어 발언권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 대리인 이현수: 간단하게 3가지 정도 여쭙볼게 있는데요. 제 2조 오타가 난 거죠?.네 그리고 그 다음은 제 10조 인권에 추가상정 2번에 괄호가 되어있는데 아까 통과안건 원래부터 2/3찬성을 요구하는 안건은 수정 과반 찬성을 요구하는 안건의 수정안은 똑같이 과반찬성으로 처리하게 됨. 10조에서는 안건의 추가상정에 대해 괄호하고 수정만 되어있어서 원래 과반찬성을 요건으로하는 안건의 수정안이 나왔을때에는 간단하게 예를 들면 결의원에 대한 수정안이 나왔을때에는 과반 찬성으로 할 것인지 2/3이상 찬성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할지 제 10조에 대해 말해주기 바람. 다른 세칙과 달리 가목 나목 다목으로 얘기하고있는데, 특별한 이유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우선 제2장에 오타가 있기 때문에 오타 수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재정안 전문에서 제 10조에 안건에 추가상정 및 수정에 대한 부분은 수정안 제출이 아니라 이전에 중운위에서 학운위 안건상정에 대해서 추가상정이나 해당안건에 추가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추가 상정된 수정안의 수정이 필요할 때 2/3의 찬성으로 가결하도록 한다라고 해석 할수있습니다. 가항,나항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선거시행 세칙에 따라서 적용 내용은 그러한 세칙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내용은 기존 통과 안건을 반영했다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이현수: 네 감사합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추가적인 질의가 없으면 원안에 대한 찬반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질의 있으신 건가요?

물리학과 학생회장 김명균: 제15조 나목을 보면 수정안 제출 이후에 토의 순서는 제 14조와 동일하게 진행한다. 제 14조를 보면 마지막에 수정한 제출여부확인 그리고 안건수정 원안에 대한 제안 설명으로 이루어졌고 마지막으로 수정안 제출여부 확인이있는데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 14조와 동일하게 진행하는것이 아니라 중간순서인 질의답변, 찬반토론, 토의 등으로 진행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의장: 합당한 말 해당 내용 수정안 발의
발언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경영학부 학생회장: 세칙이 통과안을 바탕으로 제작이 된 만큼 회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는 것이
어떤지의견 드립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용어에 대한 설명이 왜 제외되는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의장 : 일반적으로 회칙이나 세칙의 내용을 판단할 때는 회의진행이나 오해소지가 있을때 합니다.
해당 회칙에 대해서 진행을 하되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참고로써 넣는게 좋아보입니다.

추가발언권 요구 하지만 3인이하로 했기 때문에 한분이외 추가질의하실 분 없나요?
한분 추가 질의있으신 거 맞으신거죠?추가발언권 부과를 위한 의결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추가발언권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대해 찬성하시는 분 비표 들어주세요.
비표 내려주시면 됩니다.
해당 안건에대해 반대하시는 분 비표 들어주세요.
비표 내려주시면 됩니다
해당 안건에대해 기권하시는 분 비표 들어주세요.
비표 내려주시면 됩니다. 결과 재적 73 찬성 72 반대 0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한분에 한해 발언권 부여하겠습니다.

간호대학 b반 비상대책위원장 : 2장3조에 보면 선거미실시로 인한 대표자 부제는?
의장: 제정으로하고 있는데 비대위로 진행됨에 따라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하지 않고 공식으로 둘째
현행과 같이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추가 질의사항 없으면 찬반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수정한 제출하고자 하는 대표자 발언권을 얻기 위해 비표를 들어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회과학대학 부비상대책위원장: 14조에 대해 바탕으로 같이 토의 순서는 14조와 동일하게 진행한다고 되어
어있었는데 우리는 수정안 채택 이후에 토의 순서는 질의 및 답변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 토론 종결, 수정
안 표결, 이렇게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물리학과 학생회장:
앞에 말이랑 비슷하게 말 할려고 했는데 수정안 표결은 넣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토의 라는 명칭을 썼기
때문에 표결을 토의가 아니기 때문에 표결 전까지만 진행하는 것으로 바꾸겠습니다.

사회과학대학 부비상대책위원장:

표결을 추가한 이유는 15조에 보면 가결과 부결에 대한 명시 그렇기 때문에 표결에 대한 명시위가 나와야지 진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현재 수정안 2가지 추가적으로 제출 하실 분 계시나요? 사과대 비상대책위원장 대리인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회 대리인 이현수:

수정안에 앞서서 수정안을 넵회의의 안건으로 올리는 일은 상정이라고 부르는게 맞지않나 싶고요. 회칙을 작성하는데 있어서는 비상대책위원장이나 학우님이 동의하시면 채택대신에 '상정'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제 10조에 있어서 안건의 추가 상정 및 수정에서 수정을 삭제하고 괄호안에 수정을 삭제하면 될 것 같습니다.중운위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수정안 10조 적용대상이 아닌데 오인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5:15:00]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 대리인 이현수: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의장: 발언 좀만 천천히 부탁드립니다.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 대리인 이현수: 넵, 죄송합니다. 다른 하나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항 대신에 가, 나, 다, 라를 쓴 이유를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어떤 규칙이든지 법에 관계없이 편/장/절/관/조/항/호/목 순서대로 하는 게 원칙이구요, 다른 회칙들은 모두 그렇게 명시하고 있고, 사실 선거시행세칙이 자료집에 실려 있지 않아서 정확히 확인을 못해봤는데, 만약 선거시행세칙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면 선거시행세칙이 잘못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세칙을 심의한다면 굳이 다시 건드리지 않겠지만, 새로 만드는 것이라면 체계에 맞게 규정되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에서 가, 나, 다, 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1항, 2항, 3항, 4항 원문자 숫자 기호로 일괄적으로 바꾸는 수정안을 하나 제안드리고 싶고요, 의사진행 발언도 하나 드리자면 수정안들이 수정안1과 수정안2를 제외하고 양립할 수 있고, 따로따로 의결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정안 1과 2가 조율되어서 하나의 안이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둘 중 하나를 고르는 절차가 있어야겠지만 나머지 수정안 3, 4는 따로 따로 의결해서 가결된 것은 반영하고, 부결된 것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는 게 수정안에 대한 학생대표자들의 의사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제안 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가적인 수정안 제출하실 분 있으신지 의사를 여쭙겠습니다.

간호대학 A반 대표 반주혜: 네, 간호대학 A반 대표 반주혜입니다. 사소한 부분이지만 말씀드리고 싶어 마이크 잡았습니다. 총학생회칙이랑 지금 새롭게 회칙을 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2조의 수정된 '나'항목에 중운위를 중앙운영위원회로 수정하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수정안 발의합니다.

의장 : 수정안 1-1로 해 주시고요, 수정안 2를 1-2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해당내용은 같은 조항에 대해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의결을 2가지 안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안된 수정안 2, 3, 4를 제안하신 분들께 해당 수정안 2, 3, 4를 한 개의 수정안으로 합쳐서 진행하는 것이 어떨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회 대리인 이현수: 네 의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수정안에는 찬성하고 어떤 수정안에는 반대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무적인 어려움이 크지 않으시다면 따로따로 표결해 주시는 건 어떨까 다시 한 번 여쭙보고 싶습니다.

의장: 네 그러면 수정안 4에 대한 내용은 발의자께서도 동의를 해주시고, 의미상 달라지는 부분이 아니라 줄인 말이나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수정안 4의 내용은 수정안 2와 3에 각각 적용이 되는 것으로 해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언권 부여하겠습니다.

사회과학대학 부비상대책위원장 김어진: 수정안 2 제안했던 사과대 부비상대책위원장 김어진입니다. 아까 사과대 비상대책위원장님 대리인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채택을 상정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일단 채택보단 상정이라는 표현이 좀 더 적합한 것 같아서 상정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네 그러면 수정안 1-2를 제출해 주신 분께도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 저도 상정이 더 맞는 단어라고 생각해서 채택 말고 상정으로 바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목에 대해서 제청이 있으면 표결 후 해당 수정안을 채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채택이 아닌 상정으로 보는 게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도 추가로 수정안 발의하겠습니다.

의장: 네 혹시 사과대 부비상대책위원장님도 이 부분 동일하게 적용하시나요? 제15조 ‘가’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수정안을 채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회과학대학 부비상대책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수정안은 제12조 ‘나’목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의장: 수정안을 채택할 수 있다면 동일하게 현재와 같이 진행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사회과학대학 부비상대책위원장: 네 제가 드린 것은 수정안 ‘나’목에 대한, 네 ‘나’목에 대한 수정안을 드린 것이고 방금 발언해 주신 대표자께서는 15조 ‘가’목에 대한 또 다른 수정안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무엇인가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 네 이상입니다.

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수정안 제출 여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제출하실 분 계실까요? 네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수정안 1과 2를 각각 1, 2안으로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수정안 상정에 대해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없이 발언하여 잘 들리지 않음) 지금 좀 복잡하게 나온 만큼 의장님께서 한 번 정리를 해 주셔야 의결이 더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의장: 수정안 1과 2는 동일한 조항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각각 1안과 2안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요, 수정안 2, 3, 4에 대해서는 채택을 할지, 말지, 다시 말해서 상정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3번 뒤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정안 1, 2, 3, 4를 각각의 안건으로서 수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수정안 1안에 대한 찬성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2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수정안 상정에 기권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집계 결과입니다. 참석 인원 74명 중 1안 61명, 2안 1명, 기권 12명으로 1안이 상정되었음을 알립니다.

의장: 네 우선 상정된 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회의로서는 이해를 하고 있지만 이게 회의 결과 보고로서 진행될 때에는 학우분들께 또 혼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수정안 1의 내용은 제15조 수정의 건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각각에 해당하는 안이 1안과 2안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수정안 2로 되어 있는 것을 제10조 수정의 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의 것은 항목 나열 수정의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4의 제목은 제15조 '나'목 수정의 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순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수정안5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대표자께서는 기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의가 없는 관계로 찬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을 희망하시는 대표자께서는 비표를 들고 발언권을 얻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하시는 대표자분이 없는 관계로 수정안 상정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기권하시는 대표자분은 비표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표결 인원이 맞지 않아 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표는 머리 위로 높이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해당 안건에 찬성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기권하시는 대표자분은 비표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집계 결과입니다. 참석 인원 75명 중 찬성 7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장: 네 이어서 발의된 순서대로 제10조 수정의 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제10조 수정건 상정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수정안 상정에 대해 반대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수정안 상정에 대해 기권하시는 대표자분은 비표를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집계 결과입니다. 참석 인원 75명 중 찬성 7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해당 안건은 상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응용통계학과 부학생회장: 다름이 아니라 수정안 제15조 '나'목의 수정 건이라고 쓰여 있어야 할 부분이 제5조 수정권으로 오타자 있는 것 같아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부비대의원장: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수정안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및 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적인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에 희망하고자 하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므로 상정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대표자분은 비표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대표자분은 비표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기권하시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집계 결과입니다. 참석 인원 75명 중 찬성 7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해당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과 : 참석인원/찬성/반대/기권 은 75/74/0/1명으로 해당 수정안 가결.

의장: 항목 나열 수정건 진행.

부비상대책위원장 : 항목 나열 수정안건에 대한 의견 상정

5:36

부비상대책위원장: 수정안 상정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비표 들어주세요.

비표 내려주시면 됩니다.

해당 안건에대해 반대하시는 분 비표 들어주세요.

비표 내려주시면 됩니다

해당 안건에대해 기권하시는 분 비표 들어주세요.

비표 내려주시면 됩니다.

결과:참석인원/찬성/반대/기권은 75/75/0/0명으로 해당 수정안 상정됨.

해당 상정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없으므로 찬반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 희망하는 대표자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 얻어주세요. 네 없으므로 상정된 수정안에 대한 표결안 진행하겠습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해당안건을 찬성하시는 분 비표 들어주세요.

비표 내려주시면 됩니다.

해당 안건에대해 반대하시는 분 비표 들어주세요.

비표 내려주시면 됩니다

해당 안건에대해 기권하시는 분 비표 들어주세요.

비표 내려주시면 됩니다

집계 결과입니다. 참석인원/찬성/반대/기권은 75/75/0/0으로 해당 안건 가결되었습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간호대학학생회장 :

: 의사진행 발언과정속에서 제척 제정하는 과정입니다. 통과안건에 따라서 채택으로 의결을 명 해왔는데 상정으로 의결을 명하면 혼선 유발 가능합니다 . 이번까지만 채택으로 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알겠습니다.

통과 안건 반영한다는 존중한다로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발언권 부여하겠습니다.

물리학과학생회장 : 다름이아니라 과목 수정건에서, 제정이 아니라 제청이 라는 오타가 있습니다.

의장: 마지막, 제 15조 과목 수정 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 비상대책위원장: 제 15조 과목 수정안 수정한다 채택안 진행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비표 들어주세요.

비표 내려주시면 됩니다.

해당 안건에대해 반대하시는 분 비표 들어주세요.

비표 내려주시면 됩니다

해당 안건에대해 기권하시는 분 비표 들어주세요.

비표 내려주시면 됩니다

결과입니다. 참석인원/찬성/반대/기권은 75/74/1/0으로 수정안 채택이 되었습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질의및 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표를 들어 발언권을 얻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없으므로 찬반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 희망하는 대표자는 비표를 들어 발언권 얻어주세요. 네 없으므로 상정된 수정안에 대한 표결안 진행하겠습니다.

부 비상대책위원장: 해당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비표 들어주세요.

비표 내려주시면 됩니다.

해당 안건에대해 반대하시는 분 비표 들어주세요.

비표 내려주시면 됩니다

해당 안건에대해 기권하시는 분 비표 들어주세요.

비표 내려주시면 됩니다

결과입니다. 참석인원/찬성/반대/기권은 75/71/1/3명으로 가결되었을 알려드립니다.

비상대책위원장: 회칙 제정과 신설에 관해서는 어려움 있는데 상정된 내용으로 더욱 수정 보안을 통해 중앙대학교 회칙 개정에 더욱 이바지 하여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학부비상대책위원장 :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 시행 회칙 추가 수정안 제출이 가능한가요?

의장: 저희가 수정안 제출 의사를 번복하거나 돌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회칙 제정은 추가적으로 앞으로 도 추가적으로 고쳐나갈것입니다.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 대리인 : 표결안건을 수정안에 대해서만 했는데, 시행회칙 의결이 끝났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는데 , 수정안 모두 가결시켰으므로 수정안이 반영된 시행세칙에 대해서 의결을 해야 한다. 시행세칙 전체에 대한 학우들의 의견 모은 적이 없습니다.

의장 : 해당 수정안이 모두 가결되었으므로, 모두 반영하여 시행회칙을 만드는것이 합당함. 시행 세칙 제정으로 의결 명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중앙대학교 서울 캠퍼스 시행세칙 의결 진행.

의장: 간단한 질의 진행 하겠습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찬반 토론 진행 하겠습니다.수정안 제출하고자하는 대표자는 비표 들어 발언권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학부 비상대책위원장: 수정안 제 3조가 나항목에 대해 수정안 제출 예정인데요. 3조 라에는 확대 운영위원회 실시간 영상 송출하고있는데, 1,2,조에서 기입한것처럼 학생대표자 회의로 하거나 전체학생대표자 회의로 기입하도록 합시다.

의장 : 학운위를 학생대표자회의로 변경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수정안 순서는 기존의 제출된 수정안에서 진행됩니다. 앞서 제정안 모두 완료 후 의결을 거친다는 내용 말씀 드렸습니다. 해당 내용은 사과대 비대위 말씀을 반영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출 수정안이 없으시다면 학생대표자회의 3조2항 수정과 함께 제정안에 대한 의결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문헌정보학과 비상대책위원장 : 추가 수정안 있습니다.. 1조 학생대표자회의 민주적이고 원활한 대표자 회의라고 나와있는데 이 비문이라 학생 대표자 회의를 원활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수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의장 : 두 가지가 각각 다른 조항에 포함되어있는 내용인데요. 내용상 변화는 없으므로 두 가지를 한 번에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문헌정보학과 비상대책위원장: 동의합니다.

의장: 두가지 내용을 반영하여 전학대회 한번에 의결 진행하겠습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두가지 수정안 채택에 대해 의결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두가지 내용을 담은 수정안 채택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수정안 채택 절차 먼저 의결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부 비상대책위원장: 해당 두 가지 모두를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비표 들어주세요.

비표 내려주시면 됩니다.

해당 안건에대해 반대하시는 분 비표 들어주세요.

비표 내려주시면 됩니다

해당 안건에대해 기권하시는 분 비표 들어주세요.

비표 내려주시면 됩니다

의결이 맞지 않아 투표를 재진행합니다.

부 비상대책위원장: 해당 두 가지 모두를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비표 들어주세요.

비표 내려주시면 됩니다.

해당 안건에대해 반대하시는 분 비표 들어주세요.

비표 내려주시면 됩니다

해당 안건에대해 기권하시는 분 비표 들어주세요.

비표 내려주시면 됩니다

결과입니다. 참석인원/찬성/반대/기권은 74/73/0/1명으로 해당 수정안은 채택됨.

비상대책위원장: 모두 두 의원께서 공동으로 발의해주신 내용에 대해 질문이 있으신 대표자는 세칙 전반에 대한 질문 부탁드립니다.

비상대책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 의사가 있으신분 비표를 들어주세요. 네 없는 것으로 하고 세칙 의결 진행하겠습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중앙대학교 시행 제칙에 대한 의결 진행. 아.. 마이크.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 : 시간이 늦어짐. 의장님께서 세칙 제정에 대해서라고 말씀해주셨는데 화면에는 해당 수정안에 대한 것으로 나옴

비상대책위원장: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 시행 회칙 수정안으로 알아주세요. 원안을 담고 있으며 수정 거치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2가지 내용을 담아 수정안으로서 확정짓고자 합니다.

부 비상대책위원장: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시행 세칙 제정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비표 들어주세요.

비표 내려주시면 됩니다.

해당 안건에대해 반대하시는 분 비표 들어주세요.

비표 내려주시면 됩니다

해당 안건에대해 기권하시는 분 비표 들어주세요.

비표 내려주시면 됩니다/

7결과 : 참석인원/찬성/반대/기권은 74 72 0 2로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비상대책위원장 : 마지막 의결안건 진행하겠습니다.46페이지 참고 부탁. 중앙감사위원회 체제 개편 결의안 건. 추진 배경 및 목표. 2019년 학생회비 감시 목적 설립, 잦은 탈퇴, 수차례 감사 불가, 이번 1학기 감사 또한 중앙감사위원회 발의로 무산, 학운회 방향성에 대해 논의 결과 바탕으로 체제개편 논의 지속, 정기적으로 폭넓은 논의를 통해 중앙감사위원회 tf구성, 다음학기 체제 개편안 의결 상정.

2022-1학기 중앙감사위원회 학생대표자는 확대운영위원회 지위 및 방향성에 대해 논의 결과 존중, 다음 사항 결의. 1) 중앙감사위원회 체제 개편 논의를 위한 TF(이하 '중감위 체제 개편 TF')를 구성하고 구성은 중앙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 2. 2021-2학기 확대운영위원회의 논의 사항을 존중하여 본 개편이 3. tf는 중앙감사위원회를 위한 폭넓은 방향성을 위해 진행 4. 학생대표자 회의에 추가 논의 사항 의결을 제안한다. 해당 결의안에 대한 검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비대위: 부여드린 시간이 모두 지나 중앙감사위원회 체제 개편 결의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를 원하시는 대표자분은 비표를 들어 질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용통계학학생회장: 1에 보면 ~라고 되어있는데 혹시 구성을 중운위에서 논의를 통해 구성 결정하는 것인지 구성 방식을 결정하고 이후에 결정?

결의가 완료되고 나면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필요 할 것

의장: 통합적인 이야기가 될것 중감위 TF 구성 결의가 마무리된 다음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논의할 것이

고 현재 중감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감사단체의 자치권에 대한. 어떠한 단체들이 TF에 구성될 것에 대한 논의를 할 것, 중운위에서 논의를 통해서 구성을 할 것

부비상대책위원장: 네. 추가적인 질의..

인문대학 비상대책위원장 : 늦은 시간에 결의안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의견 말씀드릴 것 오랜 시간 논의한 결과 체제 개편해 중감위원장 신상 이유로 사퇴하게 됨. 중감위의 향후 방향을 결정할 것.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느냐, 기로에 놓임. 그렇기에 이번 결의안 중요 2019년 설립된 당시 부터 가진 중감위 필요성에 공감하고 유지에 공감하는 인원도 계시겠지만 저와 인문대학 여러 단위의 이견은 부족한 감사위원회 인원 모집 문제 학과 단위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중감위의 체제 근본 이유부터 다시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함. 해결될 수 없다면 중감위가 대학생 자치 사회에 필요한 기구인지 논의 필요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 대리인 이현수: 원래 드리려고 했던 질문은 중감위 체제 개편 결의에 동의 그러나 개편할 때에는 반드시 그 기구의 의견을 들어야 함. 이번에 중감위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방법 있는지 여쭙보고자 했는데, 중감위원장 사퇴하셨다고 하셔서 현실적으로 가능할진 모르겠어요. 직간접적으로 중감위원장의 의견 들을 수 있는 방법 있는지. 저도 방금 들어서 중감위원장 갑자기 사퇴하셨다니 유감입니다

의장:

체제 개편을 비롯해서 당연히 그 논의를 위해서는 해당 기구와의 논의 필요 해구가 오늘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때부터 논의를 거쳐오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번 대표자회의에서 체제 개편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중감위와 논의 나눠옴 .논의가 충분한 것으로 중운위 의견 모음 .

갑작스러운 위원장 사퇴로 중감위 현실적 문제에 직면함. 이번 결의안이 가결된 관련 tf를 통해 어떻게 앞으로의 향후 지위를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 다음 대표자 회의에서 발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 질의 및 답변 시간 초과한 관계로 질의 필요하시면 의결. 혹시 추가 질의 하실 분 한 분 밖에 안 계신가요?

한 분에 대한 추가 발언권 찬성하시는 대표자 분 비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부 비상대책위원장: 한 분에 대한 추가 발언권 찬성하시는 대표자 분 비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면 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대표자 분 비표 들어주세요.

비표 내려주세요.

해당 사안에 대해 기권하시는 대표자 분 비표 들어주세요.

비표 내려주시면 됩니다.

결과 : 참석인원/찬성/반대/기권은 74 /71/ 0 /3 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추가 발언을 허용하겠습니다.

경영학부 B 부학생회장 이재원: 우선 발언권 찬성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단한 질문이지만 제 주변 중 아무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함. 중감위 설립 이후 중감위원장 잦은 사퇴로 사퇴 이유나 그 배경이 명확한 게 있나요?

의장: 제가 학생 사회에서 지속적인 역할 해오면서 알기로는 일신상의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일신상의 이유로 사유 밝혔고 구체적인 사유는 전해들은 바 없습니다. 중감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느꼈던 점은 중감위가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느꼈고 학생 사회가 활동을 해감에 있어 그런 점

에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잦은 사퇴가 발생하고 있지 않나하는 개인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학부 B 부학생회장 이재원:감사합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추가적인 질의 없이 찬반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 원하시는 분 비표 들어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대표자 분은 비표 들어서 발언권을 얻어주시길 바랍니다.

제출된 수정안 없는 관계로 원안에 대해 의결 진행할 것

중앙감사위원회 체제 개편 결의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대표자 분 비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면 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대표자 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세요.

해당 안건에 대해 기권하시는 대표자 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면 됩니다.

[06:18:00]

부비상대책위원장: 네 집계 결과입니다.

참석인원 75중 찬성73명 반대 0명 기권2명으로 해당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알립니다.

다음으로 심의 안건 진행하겠습니다.

회계 사무국장은 보고좌석으로 나아주시기 바랍니다.

학생회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설명해주시겠습니다.

마이크 앞으로 가져다주세요

의장: 우선 말씀해주세요

경영학부 부학생회장: 의결 진행 방식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참여했던 18년도 전학대회에서도 지금과 같이 비표를 활용한 의결 방식이 이뤄졌었습니다. 당시에도 비표를 활용한 의결진행방식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의결수 오류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원활한 회의 진행에서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현재 많은 대표자 분들이 공감하실텐데, 비표를 활용하는 의결과정에 피곤함을 느끼고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는 데 있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발전하는 시대에 맞춰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하면 좋을거같아서 의견을 내게 되었는데요. 다음 전학대회 부터 도입이 힘들더라도 반별대회나 중운위 회의등 먼저 해당 시스템 도입을 해보면서 적절하다고 판단 시에 전학대회도 도입하게된다면 우리의 학생 사회의 건전한 회의에 큰 도움이 되고, 학생 사회에도 이바지할 것이라 생각하여 발언권을 얻고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의장: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표 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것을 너무 잘알고있습니다. 전자투표 도입되면 물론 좋죠, 선거를 진행할때도 전자투표를 활용하고 있구요. 우선은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해야겠습니다. 아직까지 고려된 적이 없기때문에 비용에 대해 잘 모르겠지만 선거에서 전자투표에 드는 비용 생각하면 꽤나 많은 비용 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정확한 예산은 살펴봐야겠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즉각적인 의결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을 하더라도 확인이 되어야 함 이러한 부분 고려해서 현실적인 부분에서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어진 임기가 있을

때까지 고려하겠습니다.

경영학부 부학생회장: 한번 알아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조언 감사합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 심의안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사무국장님께서는 보고자으로 나와주세요. 학생회비 관련해서는 의장님이 부연설명 하시겠습니다.

의장: 네 자료집 47페이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학생회비 사용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집 47~49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예산안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63대 총학생회에서 임계 받은 금액은 2,7121,810원 그리고 지난 총학생회에서 진행했던 이벤트중 상품 배송이 되지 못한 건에 대한 지출 있었습니다. 또한 현 비대위 체제에서 지출이 있었으며 개강행사에서 추가 지출이 있었으며 개강인사에 대한 지출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출은 중앙운영위원회 의결 통해 진행. 해당 사항에 대해 대표자 여러분들의 심의 요청 드립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 자료집 47,48,49 페이지까지 해서 학생회비 사용 내역을 약 2분 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네 2분의 시간이 지나 질의응답 진행하겠습니다. 대표장분들의 질의에 대해 회계사무국장께서 답변하시고 의장께서 보충답변 진행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대표자분은 비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간호대학 비상대책위원장 민채원 : 두가지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첫번째로 불법 카메라 관련 건입니다. 47 페이지 보시면 22년 6월 16일에 스티커 구매 비용이 한 번 지출 된 바 있는데 48페이지에 보면 6월 25일에 똑같은 항목으로 스티커를 재구매 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 질의드리구요

두번째는 개강행사 이벤트입니다. 48페이지 3월 1일에 보면 개강인사 이벤트로 플랜카드 및 배너로 지출 된바 있는데 49페이지 3월 9일 보시면 중앙집행위원장 성함 작성되어 있고 같은항목으로 185,000원 지출된 것이 확인됩니다. 이에 대해 어떤 항목으로 다시 지출이 되었는지 왜 3월 1일자에 대해서는 00업체로 입금되었는지 , 이건 왜 중앙집행위원장 계좌로 입금되었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계 국장: 네 먼저 첫번째 질문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카메라 전수조사 스티커 같은 경우는 수량 부족하여 추가로 구매해서 두번 지출이 발생하였습니다.

두번째 질문이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주신 내용이 30번 항목인데 34번 항목 보면 개강인사 플랜카드 및 배너 취소건이 적혀있습니다. 해당 구매는 행사 진행에 맞춰 구매 하였으나 업체측에서 배송하지 못하겠다는 답변 받아 새로운 업체에 추가 구매를 신청하였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185,000원이라는 플랜카드 및 배너 추가 지출 하였습니다.

간호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추가질의 해도 되나요? 근데 185,000원을 같은 항목으로 다시 보낸건 알겠는데 이건 거래처가 중앙집행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 국장: 해당 부분에 있어서는 원칙상 학생회비 카드로 구매한 것이 원칙이나 해당 날짜에 착불로 해야 했어서 그 당시에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이 중앙집행위원장밖에 없어서 개인 카드로 결제하고 추가

학생회비로 환급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해당 집행부 내에서도 개인 카드를 결제하는것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추후 발생할 결제에 대해서는 개인 카드로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호대학 비상대책위원장: 18만 5천 지출 내역에 상품 구매비 말고 배송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나요? 배송비가 혹시 쿡 같은 서비스로 받으신건지.

의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리디라는 업체를 최초에 사용하려고 했던 까닭은 저희가 여러 업체를 찾아보았는데 해당 업체가 가장 저렴하게 이용을 할수가 있어서 미리디라는 업체를 선정했었습니다.

이는 다만 가격이 저렴 한 대신에 오래 걸려서 약속한 기간 내에 받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급하게 주변에 있는 업체에 문의해서 플랜카드와 배너를 주문하게 되었구요, 해당 업체에 직접 가서 결제하고 받아오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영수증은 증빙 서류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호대학 비상대책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대표자 분 계신가요?

산업보안학과 부학생회장 이준안:

42번 항목 보면 총실 이라고 적혀 있는 데 자세한 품목이 적혀있지 않아서 질의 드립니다.

회계사무국장: 해당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집에서 누락되어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위원회에서 사용된 내역으로 증빙 서류에서 영수증 확인 가능.

부비상대책위원장: 답변 되셨을까요?

감사합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추가 질의 없으시면 심의안건 마치고 국보고 안건으로

중집위 일상사업국 회계사무국 홍보송통국 인권복지위원회 장애인권위원회 졸업준비위원회 순으로 진행될 예정.

중집장

보고자 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캠퍼스 64대 중앙집행위원회 경영경제대학 16학번 임수원 인사드립니다. 중앙집행위원회는 먼저 총학생회 회칙상 최고 집행기구로서, 진행하는 사업을 기획, 검토, 관리하며 총학생회가 약속한 정책을 이행하고, 다양한 사업을 집행하여 학우분들의 권리와 편의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만 총학생회 회장단 별도로 이행중인 공약 없이 학우분들의 최소한의 편리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 중앙집행위원장단에서 완료한 개강행사의 건입니다. 2022-1학기 하이브리드 개강에 맞춰 개강인사행사를 대면 및 비대면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약 1000명의 학우분들께 푸아앙이 포토존을 마련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오프라인 개강행사를 통해 학우분들과 소통할 수 있었음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

고 즐겨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 감사인사 올립니다. 다음은 e-Advisor 사용 현황 및 개선점 파악 설문조사의 건입니다.

응답자 중에서 활용을 한다고 말씀하신 학우분들은 만족도 높게 나타났으나 미활용자는 해당 서비스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으로 파악. 프로그램 접속 문제 개선하고 편입, 복전 등 업데이트 소요등의 피드백을 통해 교학장님께 전달. 이 어드바이저를 통해 성장 목표. 마무리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가요?

부비상대책위원장: 해당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보고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중집위 업무보고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상사업국장님의 사업보고가 있습니다. 보고자석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상복지사업국장: 안녕하십니까 중앙대서울캠퍼스 연대사업일상복지국장 도시계획부동산학과 17학번 연대사업국은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사회적 계층 간의 소통 및 교류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학우분들의 편의 및 권리를 위한 제휴 사업을 진행합니다. 일상복지국은 학우분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데 있어 편의를 누릴 수 있는 대여사업 등을 비롯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진행합니다. 연대 사업국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시작 1) 외부제휴사업입니다.

교외 다양한 업체들과 일정 기간 제휴를 맺는 사업을 통해 중앙대학교 학우분들께서 다양한 분야에 있어 할인과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 확인.

2) 응급의약품 사업입니다.

건강센터 업무 시간이 종료된 이후, 캠퍼스 내에서 다치거나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을 때 의료용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녁 시간 이후에도 운영되는 약품 창고를 만들어 학우분들을 돕고자 합니다.

응급의약품은 도서관 1층 3구역 29번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운영시간 동안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베타딘 스프레이, 밴드, 스프레이, 부착형 파스, 붕대, 연고를 구비해 놓고 있으며 한 달에 한 번 부족한 응급의약품을 확인하여 보충하고 있습니다. 사물함 비밀번호는 카카오톡 채널의 자동응답항목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일상복지관련국 관련 보고

3) 이2022-1학기 교내 불법카메라 전수조사 진행

교내 불법카메라 전수조사를 통해 학우분들이 화장실 불법카메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중앙운영위원회와 함께 정기 조사를 진행하며 별도로 불시 전수조사 진행하여 불법카메라로부터 안전한 중앙대학교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번 2022-1학기 불법카메라 정기 조사를 2월 중 진행하였으며 의심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총무팀 및 동작경찰서를 동원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내 불법 촬영기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불법카메라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대응 매뉴얼을 통해 신속하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4) 상시 대여사업

○ 추진 배경 및 목표

학우분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를 위하여 대여 사업을 진행합니다. 전자기기의 방전이나 대형 인쇄물 인쇄비용에 대한 부담 등 학우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보조배터리, 충전기, 케이블, 플로터, 불법 카메라 탐지기기를 구비하여 대여사업을 진행합니다. 이상 끝
해당 내용에 대해 1분간 질의가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감
연대사업국 질의.

인문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이유진: 작년에 연대사업국 경우 개강과 동시에 연락을 돌리고 계속 이제 연대를 취해옴 비대위체제에서도 이러한 활동이 있었는지 궁금
일상복지국장: 오미크론 상태로 인해 학우, 농민들의 안전을 위해 하지 않음.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지장에 없도록 인수인계 하겠음

인문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이유진:답변 감사합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 있으신 분?

사회과대학 비상대책위원장 대리인 이현수:
일상복지국 질의. 자료집에는 안 나와있는데 아시겠지만 작년 총학생회에서 성평위 폐지 이후 승계 월경용품 중앙집행위원회 일상복지국으로 대면 전환 후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심. 부분전환이 된 상황인데 일상복지국 상황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

일상복지국장: 생리대 비치함을 자체적으로 비치하고 있는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총학생회가 진행하고 있지 않음,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단체측에 연락을 해 협력을 하거나 학우들에 비영리 단체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 대리인 이현수: 소통이 된 부분이 있었나요?

일상복지국장: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월경용품 잘 구비 되고 있는지 해당 단체에도 연락을취해서 문제가 없는것으로 앎. 총학생회가 지속할 예정.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 대리인 이현수:
비영리단체가 학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는게 적절한가에 대한 생각이 듭, 임기가 끝났지만 공공인재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을 시기에 단위요구안을 작성하며 학내 화장실과 자치공간에 월경용품을 비치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비영리단체, 학생회보다 학교차원에서 진행하기를 바램, 월경권 보장을 위해 쉐신된 의견이 있는지 여쭙어 보고 싶습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발언 속도 조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해당 사안에 대해 몇주전 중운위를 통해 내용을 받았고 건의한 상황, 학교본부측에 답변이 와야 답을 드릴 수 있음. 받는대로 공유하겠음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 대리인 이현수: 학우들이 모든 준비가 끝날때까지 생리를 안 할 수는 없음, 공백이 없어야 함.

부비상대책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대표자 있으신 분은 의결후에 한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의결권 발의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찬성하느 대표자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람
비표 내려주시면 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대표자 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세요.

해당 안건에 대해 기권하시는 대표자 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면 됩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조금 늦어진다는 양해 말씀 드림.

결과 : 참석인원/찬성/반대/기권은 74/73/0/1 대표자 한명에 대한 추가 발언 드림

경영학부 부학생회장 여수현:

우선 추가 발언에 대해 동의해주신 대표자분께 감사합니다. 응급의학용품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정보가 공지되어있음 다른 사업과 달리 카드뉴스 배포가 되지 않음, 카드뉴스 배포를 제안함.

일상연대사업국장: 의견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더이상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일상연대국 보고 업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홍보소통국장 간호학과 19학번 이현정 보고안건

중앙집행위원회 홍보소통국장 이현정: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4대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소통국장 간호학과 19학번 이현정 확대운영위원회 대표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홍보소통국 보고안건 드리겠습니다. 대표자분들께서는 자료집 참고 부탁드립니다.

첫째, 학우분들께 총학생회와 학교 소식을 즉각적으로 전달하고, 각 소통창구를 통해 학우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가지의 SNS 및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학생회 SNS는 총 26,507명의 학우분들께서 소식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페이스북 페이지는 4,900명의 사람들에게 게시물이 도달되었고, 인스타그램은 최근 한 달 동안 13,312개의 계정에 도달하였으며 임기 시작 이후 팔로워 수가 1000여 명 증가하였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은 예년 수치를 유지 중입니다.

둘째, 각종 SNS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들을 좀 더 알기 쉽고,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에 게시되는 모든 콘텐츠들에 대한 디자인 및 제작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임기 시작 이후, 인사/ 긴급공지/ 사업홍보/ 설문조사 등의 포스터 12건과 월간 카드뉴스/ 정보전달/ 사업 이벤트/ 결과보고 등 카드뉴스 8건, 이외에도 중대중심 디자인/ 인스타그램 내 각 위원회 바로가기 하이라이트 이미지 등을 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학생회의 교내 오프라인 홍보물이나 인쇄 제작물을 통해 학생자치를 알리고, 중앙인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플랑, 물통배너 등 캠퍼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형식을 활용하여 개강인사 이벤트 등의 오프라인 홍보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국 보고안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대표자분께서는 질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문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이유진: 지금 자료집 55쪽 보시면 첨부하신 이미지에 공간 조정 회의무산공고가 있습니다. 위원회 내부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홍보소통국 체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

의장: 총학생회 구성에 대해서는 의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정상적으로 총학생회로 운영되었을때는 각 산하위원회 국장이 있었지만 비대위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필수적인 상시적인 업무를 집행하고 있음, 홍보소통국에서 주도적으로 게시물을 제작하고 있고, 1월 공조 무산시 위원장이 선발되고 국장국원이 선발되지 않았기에 홍보소통국에서 제작함

인문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이유진: 답변 감사합니다.

[07:00:00]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학생회장:

중대중심 사이트 관련 질의. 사이트보면 회칙, 중운위 회의록이 공개되어있는데 총학생회칙에 대해서는 공개가 되어있지 않아서 로그인을 해야만 볼 수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의장: 아마 별도의 사유가 있어서 그런것은 아니고요,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다보니 그런 사항이 발생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업체측에서 사이트에 어떤 서브적인 부분으로 관리하고있어서 해당 관련해서 논의해보고 우리 학교 학생이라면 모두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학생회장: 감사합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추가적으로 앞쪽에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경영학부 b반 부학생회장:

안녕하세요, 경영학부 b반 부학생회장 이재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졸업준비위원회 관련 자료들도 홍보소통국이 만드는 것이 맞는지 확인차 여쭙보고 싶습니다. 56페이지에 나와있어서 여쭙봅니다.

의장:제가 지금 비대위체제에서 규정해 나가고 있는 것이, 각 국 위원회별로 제작할 수 있는 게시물들에 대해서는 자체로 제작을 하고 내용이 많거나 어떠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홍보소통국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학부 b반 부학생회장: 건의점 질의를 드리고 싶은게 졸업준비위원회 관련된 것인데 말씀드려도 될까

요?

의장: 우선 말씀해주시고요 혹시 여기서 답변이 부족하다면 졸준위 보고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학부 b반 부학생회장: 큰 건의사항은 아니고 사소한 것일수있는데 졸업준비위원회 관련 공지들을 공식적으로 단톡을 통해서 공지글을 전달을 받는 것이 아닌 4학년대표님들에게 직접 전달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희 단위가 특이한 것일 수 있지만, 저희는 총 8개의 학부에게 공지를 해야했는데 갑자기 10개 이상의 비슷한 성격의 공지글을 전달받아 혼란스럽고 또 누락의 위험이 컸습니다. 시간차를 가지고 공식적인 단톡으로 공지글들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우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총학생회 차원에서 공지에 경중에 따라서 어떻게 게시물을 공유하는냐에 차이가 있습니다.

총학생회 자체 사업이나 이벤트의 경우에는 총학생회 자체 SNS를 통해 일반적으로 진행을 하고,

중요도가 매우 높거나 학우분들께 긴급하게 알려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중앙운영위원회 각 단운위를 통해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공유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졸업준비위원회같은 경우에는 말씀해주시는 내용이 졸업기념품 배부와 졸업 앨범 배부, 학위수여식 안내등에 대해 한꺼번에 공유가 되는 것에 대해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요,

부비상대책위원장: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질의 답변시간이 5분이 초과돼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졸준위의 주된 업무들은 총무처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총무처와의 협의가 늦어짐에 따라 답변이 늦어졌던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많은 관심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급하게 안내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안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율해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학부 b반 부학생회장: 감사합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할 대표자분 계신가요?

발언시간이 다 초과되어서

추가적으로 발언권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대표자 한분인 것 맞을까요?

경영학과 학생회장 박신: 의사진행과 관련된 규칙,

회칙 때문에 보고안건에 대한 질의에 있어 추가적인 발언건에 대해 의결권을 얻고 얻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보고안건 같은 경우는 이전의 안건과는 특이하다고 생각이 돼서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있으나 표결심의에 동의를 사용해서 변경가능하다고 해서 보고안건 만큼은 질의답변 5분이내 시간을 준수하되 인원수에 대한 제한을 풀어서 진행 하면 저희가 불필요하게 추가질의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부분에 대해선 고려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계속 인원수보단 시간에 대해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제가 정확한 의결을 위해 추가적인 대표자 수를 확정지어 의결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에 있어 추가적으로 더 진행하고 싶으신 점에 대해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우선 말씀해주신 취지는 매우 대단히 공감합니다. 다만 통과안건에서 약속한 내용은 회의 전반에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이 아니더라도 안건을 다시 적용하게 되면 큰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보고안건에서 대표자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질의를 받고 조언을 받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5분이내의 3인 이하라는 규칙이 있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빈다. 좀 더 중요하고 우리 학생사회에 더 크게 의미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을 바란다는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학과 학생회장 박신 : 감사합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 의사진행 발언이신가요? 마이크 전달 부탁.
발언하시는 모든 대표자분께서는 발언 속도를 조금만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 대리인: : 경영에서 주신 의견에 동의해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 5분 이내 3인 이하 규칙을 정하고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규칙이라는 것이 회의를 잘하기 위해 규칙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5분 이내 3인이하라는 규칙 때문에 계속해서 학생 대표자분들이 한 두 번씩 더 집행부에 질문하실 게 있으셨던 것 같고 그것을 질문을 더 받아줄지 말지를 표결하는 시간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분 이내 3인이하라는 규칙이 회의 진행에 더 도움이 된다면 잘 지켜야겠지만, 그리고 앞에서 정한것이기 때문에 지키면 좋지만, 이 규칙 때문에 의사 진행이 더 더뎜다면 저는 재고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렇다고 무제한으로 발언을 열어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유연한 기준을 제시해서 저희가 기준을 조금 더 올리고 그리고 나서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것이 어떨지 제안드립니다.

의장: 보고안건은 더 유하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시간 제한을 조금 더 초과하더라도 유하게 넘어가도록 하고, 다만 인원수에 대해서는 정해진 인원수 대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회의 진행에 있어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3인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시간이 그렇게 길게 걸리지는 않습니다. 대표자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가 발언 1회에 대한 의결 진행해주세요.

부비상대책위원장: 대표자 한 분에 대한 추가 발언권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해당 사안에 대해 찬성하는 대표자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면 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대표자 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세요.
해당 안건에 대해 기권하시는 대표자 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면 됩니다.

결과 : 집계 결과입니다. 참석인원72명중 찬성70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해당 사안은 가결되었습니다.
마이크 전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 부위원장 :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아니라 홍보 관련 전반적인 질문일 것 같아서 해당 보고안

건 때에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과 동시에 사회학과 학생회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에서 행사 진행할 때 총학생회 위원회를 통해 질문드릴건이 있어서 소통창구 이용했었는데요. 비대위 체제이기 때문에 소통창구를 홍보소통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카카오톡 채널만 운영 가능하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이긴 하나 각 위원회의 업무가 그대로 진행되고있는것으로 확인됩니다. sns와 같은 소통창구도 업무의 일종이라 알고 있는데 왜 해당 업무 창구가 위원회는 진행이 되지 않고 홍보소통국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톡 채널등의 공식 창구만 이용하고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이번 답변도 여러 위원회와 관련된 질의라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그렇게 안내를 드린 이유는 인원 부족 문제가 컸습니다. 이전에 일반적으로 총학생회가 구성되었을 때 산하위원회별로 홍보물과 소통을 담당 국장들이 있었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산하위원회의 sns를 통해 소통 문의가 들어온다 해서 답변을 안 하진 않으나 하지만 하루이틀 정도 답변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는 일원화된 창구를 운영하면 그곳에서 신속 답변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구요, 이전에는 보통 중앙집행위원회 내에서 카톡 채널을 담당했다면 현재는 각 위원장들도 함께 운영하여 필요한 내용에 대해 즉각적인 답변 가능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 보강이 해결되면 각 에스엔에스도 재개할 예정입니다.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 부위원장: 감사합니다. 학생자치에 있어서 학우분들께 전달되는 소통창구가 운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 대한 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이 일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일원화된 소통창구보다는 각 위원회별로 위원회에 맞는 답변을 드리는 방안으로 소통창구를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각 위원회에서 소통 창구가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소통국의 업무 보고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계사무국장님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회계사무국장님은 보고자석으로 나와주세요.

회계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4대 비상대책위원회 회계사무국장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19학번 임화현 학생 대표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회계사무국은 총학생회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회계 및 사무 관리를 통해 총학생회비의 사용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진행합니다.

회계사무국에서 진행 중 및 완료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 회계내역 및 증빙서 세부공개. 학생회비의 운용은 총학생회의 어느 사업보다 신중하게 집행되어야 하고, 학우분들께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회계사무국에서는 학생회비 사용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 및 집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학생회 내 정책 및 사업 진행 시 발생하는 비용들을 처리하고 영수증 관리를 통해 회계명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회계내역과 영수증 증빙서 파일을 작성하고 있으며, 해당 파일은 매달 1일, 중대중심 홈페이지 '학생자치 > 총학생회 회계 및 단과대 회계'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계내역뿐만 아니라 영수증 증빙서 파일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학우분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계내역 및 영수증 증빙서와 관련된 질의는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또

는 페이스북 등의 소통 창구를 통해 해주시면 언제든지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들어오는 입구에 영수증 증빙서 파일을 서류철 해놓았으니 필요하신 대표자 분들께서는 자유롭게 열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사무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의 있으신 대표자분께서는 질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1분간 질의가 없을 경우 다음 보고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다 판단되므로 회계사무국의 업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위원회 국장님 준비해주세요.

문화위원장 변이섭: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4대 비상대책위원회 문화위원장 공과대학 건설환경플랜트공학과 18학번 변이섭입니다. 학생대표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문화위원회는 매년 학우분들이 다양하고 유익한 문화생활을 즐기실 수 있도록 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제휴사업입니다. 총 1건으로, 전시업체 ‘네이처 랩스’와 전시회 ‘플라워 바이 네이키드’ 제휴를 중앙대학교 재학생 입장권 20% 할인 조건으로 6개월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연장 후 문화위원회 SNS를 통해 홍보하여, 학우분들께 다시 한 번 전시회 관람을 독려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축제기획단 모집입니다.

COVID-19 이후 2년 만에 부분 대면 학사가 실시됨에 따라, 오는 5월 봄축제 또한 대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봄 축제의 대면 진행을 염두에 두고 축제기획단을 모집 및 구성, 중앙인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대면 축제기획단 운영 프로세스를 회복하고, 배리어프리 제도를 재정비하고, 안전사고 대책에 주의하여 모든 학우들이 동등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월 6일에 축기단 모집 일정, 인원, 팀 구성, 신청 방법, 지원서 양식, 발대식 날짜, 등 모집 요강을 확정하였습니다. 모집요강에 따라 3월 10일에 모집 안내 공고를 문화위원회 SNS와 과 단체 특방을 통해 게시했습니다. 3월 11일부터 ~ 3월 13일까지 모집을 진행하였습니다. 총 300명의 학우분께서 지원해주셨으며 높은 지원율을 고려해 총 50명의 축기단원을 선발하였습니다. 3월 22일 발대식을 진행하였고, 현재 축제 콘텐츠 기획단계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간조정회의의 재개입니다.

최근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오는 4월에 대한 공간조정회의를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높은 코로나19 확진세를 고려하여 실외공간에 한정하여 진행합니다.

학생지원팀, 총무팀과 자이언츠구장 및 310관 대운동장을 평일 9시~22시, 주말 9시~18시에 한해 대관 가능한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3월 20일 ~ 28일까지 문화위원회 SNS와 중대중심을 통해 4월 공간조정회의 실시 공지를 하였으며 댓글과 문자를 통해 신청을 받았습니다. 3월 29일 18시 30분에 310관 1층 소극장에서 4월 공간 이용에 대한 공간조정회의를 마친 상태이고, 추후 그 결과를 공지할 예정입니다. 이상 문화위원회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질의하실 대표자분은 비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 대리인 이현수: 이렇게 다시 뵈어서 영광입니다. 다른일을 통해서도 비상대책위원장할때도 여쭈어봤는데 계속해서 또 헛갈렸습니다. 공간조정회의 대상인 실외/실내 공간들이 여기 써있는 실내공간으로서 학생회관 연습실이랄지, 문화위원 관할인가 동아리연합관할인지 계속해서 어디 관할인지 애매합니다. 문화위원회에서도 공간조정회의에 대한 공지를 올리시고 게시지만 동아리연합회에서도 홈페이지에 공지가 올라오고 공간조정회의에 대한 공간이 같은 공간이더라구요. 이자리에서 확실하게 자치

공간들이 문화위원회 관할인지 동아리연합회 관할인지 말씀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의장: 동아리연합회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층 실내 연습장, 3층 연습장이 있는데 3층 두개는 동아리연합회 관할 구역이고, 6층은 문화위원회 담당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이현수: 드디어 해결이 됐네요 감사합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추가적인 질의 없으면 업무보고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권복지위원회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인권복지위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4대 비상대책위원회 인권복지위원장 사회과학대학 공공인재학부 21학번 곽도운 학생대표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인권복지위원회는 총 다섯 명의 구성원들이 안전한 캠퍼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복지사업과 건강한 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인권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합니다. 인권복지위원회의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중앙도서관 사물함 관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매 학기마다 사물함 신규신청 및 철거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 시험기간 외 매일 사물함 관리를 진행합니다. 금 학기 신설되거나 시행된 사항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쾌적하고 공정한 사물함 이용을 위해 이용료 미납 제재를 예년보다 강화하였습니다. 이용료 미납자의 사물함 짐 철거 및 배정 취소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사물함 관리 플러스친구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장/파손 사물함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관련 사항을 수리업체에 전달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학우분들의 사물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인권복지위원회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권복지위원회는 사물함 이용자분들께서 납부하시는 소중한 이용료를 관리하는 계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회계 내역이 자료집 65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며, 영수증 첨부지는 의장석 옆에 있습니다. 열람을 희망하는 대표자분들께서는 자유롭게 열람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캠퍼스 규찰대 '의혈지킴이' 운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작경찰서 생활안전계와 교내 인권센터로부터 관련 교육을 받은 의혈지킴이는 야간 시간대 학내 치안 및 질서 유지를 위해 활동합니다. 올해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코스를 일부 변경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제재 범위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학우분들께서 방역 수칙 준수 및 질서 유지에 자발적으로 동참하실 수 있도록 '의혈지킴이 안내서' 카드뉴스를 게시하였습니다. 더불어, 자격 박탈 제도를 신설하는 등 규찰대원들이 보다 책임감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3월 7일 의혈지킴이 활동을 게시한 이후, 수 건의 주취자 및 실종자를 경찰 혹은 자택으로 인계하였으며, 수십 건의 방역 수칙 미준수자 및 금연 구역 흡연자 등을 제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혈지킴이가 캠퍼스의 밤을 환히 밝힐 수 있도록 인권복지위원회는 관리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우산, 체온계, 절단기 대여사업 운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여 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담은 카드 뉴스를 게시하였으며, 부분 대면 학사인 점을 고려해 대여 기간을 일주일로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체온계, 절단기 대여사업의 경우 사전 신청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1년 만에 재개되는 대여사업인 만큼, 수정 및 보완해야 할 부분이 여전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운영 방식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학우분들의 피드백을 수용하여 더 나은 대여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재선거를 진행하는 총학생회 및 단과대의 선거운동본부를 대상으로 인권질의서 및 가이드라인 활용 제언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학내 모든 구성원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건강한 생활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후보자들이 학내 인권침해의 현주소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중앙대학교 권리 가이드라인>과 <배리어프리한 공지 가이드라인>을 당선 전, 후에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장애인권위원회와 연합 TF를 구성하여 질의서 및 제언서의 내용과 방식 등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4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각 선거운동본부로 발송하고, 해당 선거운동본부에서 답변 작성 및 공개, 게시 여부와 방법 등을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공개를 결정한 선본에 한하여 각 선본 혹은 선관위 SN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앞서 말씀드린 복지사업과 더불어 비건 학식 제공현황 모니터링, 방호미화원 휴게공간 개선 등의 인권 사업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생자치의 발전을 위한 학생 대표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 인권복지위원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대표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학대학 부비상대책위원장 김어진: 많은 사업 진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 해주셔서 감사하구요. 사회과학대학 부비상대책위원장 김어진입니다. 인권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하여야 할 사항 중 하나가 누락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2월 12일 기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성폭력피해상황 신고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내용의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이 되구요. 사회과학대학에서 열심히 노력해온만큼 언급드립니다. 해당내용이 중요한내용인데 누락된것에 대해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바입니다. 그리고 싶은 내용은 우선 새내기들이 입학하였습니다. 3월이 되었고 많은 학우분들이 입학을 하셨는데 해당 공지는 2월12일에 멈추어있습니다. 성평등위원회는 지난해에 폐지된 상태이구요. 따라서 학내에서 지금 현재 크고 작은 성폭력 피해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특히나 새내기분들은 성평등위원회가 폐지된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생자치 측면에서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모를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에만 재공지 또는 그러한 공지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구요. 접수의 진행과정을 보자면 세가지로 접수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교내 인권센터, 동작 경찰서 여성 청소년계, 그리고 학생 자치내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성폭력 관련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해당공지에 따르면 접수 진행 과정 세 가지가 모두 가능하다는 것이 표기되어 있지 않음. 비록 들어간다면 세가지 모두 가능한것으로 알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세가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포함하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총학생회에서 지난해에 신고창구를 운영을 하겠다 공지를 올렸다가, 반성폭력 회칙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몇개월간 논란 되었다는 것을 여기있는 대표자 분들 많이 알고 계실겁니다. 공백 기간이 꽤나 길었습니다. 하지만 학내 반성폭력, 학내 성폭력 문제는 끊임없이 크고작게 발생하고 있는 상태이고 공백기간이 길었던만큼 재운영하는데 더욱 신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복지위원회에서는 바쁘시고 많은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지만 보다 학우분들의 안전하고 평등한 학생 소식을 위해서 신경을 조금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이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네 발언하시는 대표자분들께서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속기록이 말씀하시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있어서 원활한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발언속도를 천천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권복지위원장 :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권복지위원회 사업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과학 대학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공감을 하고있는 바입니다. 우선 첫번째 질문

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사례 신고창구에 대한 사업보고가 누락이 되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우선 성폭력 피해사례 신고창구가 어떻게 운영되고있는지 말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성폭력 피해사례 신고창구의 운영및 신고접수는 인권복지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만약에 신고가 접수될경우 이를 비상대책위원장단내에 회부를 해서 비상대책위원장단내에서 처리를 한다는점. 사업보고 하는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내부적으로 사업보고를 하지 않은점이 있습니다. 새내기 관련해서 말씀해주신점은 강력하게 공감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피해사례신고창구에 대한 공지를 다시해서 새내기분들을 포함한 보다많은 학생분들이 학생자치에 의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의 연장선상으로. 3가지 방안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발행 게시물등에 추가해서 다시 언급을 함으로 보다 많은 분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마지막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간 공백이 있었고 길었던만큼 재운영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 말씀해주셨는데요. 우선 공백과 연관해서 말씀하신 문제점은 깊이 공감하고 있음. 다만 말씀하셨듯이 그전에 운영이 되었던 신고창구가 학생회 회칙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었고, 총학생회 선거 무산 이후에 몇 개월 동안 학생자치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음. 재운영을 신중히 해야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운영되는 성폭력 피해사례신고창구는 중앙운영위원회 내부에서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서 원칙이 결정되는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도 개선해야할 점이 있는지 중앙운영위원회 및 교내 인권센터 등의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보다 나은 성폭력피해사례 신고창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비대원장: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사회학과 부학생회장 대리인 이수빈 : 기존에 비대위 체제 전에 참슬기 식당에서 월요일마다 비건 학식이 제공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과 사업 등으로 인해 문의를 해본 결과, 현재는 운영 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대해서 파악하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될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인권복지위원장: 답변드립니다. 저도 관련해서 총무팀에 연락했습니다. 해서 2월까지는 학식내에 비건가능식이 희망자에 한해서 별도로 제공되고 있었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3월에 부분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식수가 방학중에는 7~800식에서 2500식으로 3~4배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대표자분들 알다시피 참슬기 식당의 경우에는 인력 부족 문제는 항상 제기되어왔고, 현재 인력이 따로 보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식수를 준비하다보니 별도로 준비하기 어려워서 3월 부터 비건 가능식 제공을 중단을 하게 되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라면 코너도 운영이 중단이 되어서 라면코너의 채식라면이 제공이 되고있었는데 그것도 함께 중단이되면서 채식 비건식을 원하는 학우분들의 선택지가 줄어든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총무팀측에서 5월 중으로 조리인력 총원예정이라고 말씀을하시고 조리인원을 충원한 이후에 비건가능식을 다시 정상공급하기로 총무팀과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5월중 조리인원충원이 되면 비건가능식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있는지 모니터링을 함과 동시에 기존의 비건가능식이 별도로 제공되는데 있어서 배식구나 식단 표에 표기하여 많은 학우분들이 알 수 있도록 정보접근성을 높이거나 비건가능식의 종류를 다양하게 하는 등 총무팀과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 대리인 이현수: 먼저 학생 대표자 분들 늦은시간까지 보고해주시고 작년 인권복지위원회까지 공공인재학부 학우로서 인권을 헌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은 4번 선거운동본부대상의 인권질의서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장애인권위원회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인권은 굉장히 넓은 의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의제를 어떤 기조로 목표로 발행할 것인지 짧게 말씀

해 주시면 좋을것 같구요. 이수빈 학우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고 싶습니다. 성평위 학술국에 있으면서 학생 대표자 대상 성폭력혐오발언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갔는데 잘 활용이 되고 있으리라 믿고 싶는데 인복위에서 성폭력 신고창구사업을 운영하면서 어떤 매뉴얼로 어떤 기조로 운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수인계는 전임자로부터 후임자가 받는 것입니다. 인권복지위원회가 시행하고 계신 사업의 전임자는 8대 성평위이므로, 이사업을 인수인계받아야한다면 폐지가되었더라도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평등위원회로부터 직접 인수인계를 받았으면 좋겠고 비건학식관련해서도 제가 직접 시행했던 사업중의 하나인데인데 당시에 총무처에서 그렇게 말씀하면서 김성민 전 인권복지위원장과 총무처에 동시에 두가지 선택지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채식 선택권만 보장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렸고 일주일에 하루 밖에 비건학식을 제공하지 않는데 그날은 적어도 전면 비건식을 제공하는게 윤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더 맞는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총무팀에서 동시에 두 가지 선택의 식사만 제공하는 방향으로 결정함. 기존의 학생들에게 학생들에게 약속했던 점을 포기를 하였는데, 이런관점을 참고하셔서 총무처와 다시 한 번 협의해졌으면 합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질의 시간 초과한관계로 추가질의할분 있신가요 없으신관계로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인권복지위원장 :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본 질의서와 관련해서 질의해주셨는데 이에대한 세부적인 방향성 등은 아직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음. 작년의 선본 질의서를 바탕으로 만들 예정임. 작년의 경우, 장애인위의 배리어프리 관련해서는 말씀해주셨듯이 다른 인권과 마찬가지로 조금 빈틈없이 할 예정이고 성 인권 관련문제, 에브리타임 혐오 표현관련문제, 비거니즘관련문제, 대체텍스트 관련된 질문이 계속나오고 있고, 유학생의 학습권 및 주거권에서도 질의한 바가 있음. 코로나 관련 건강권 건강한 음주문화 관련된 질문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다음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혐오발언 대응 매뉴얼 활성화, 질문의 핵심은 성폭력 신고창구의 운영의기조인것 같습니다. 성폭력신고창구를 운영하면서 인권복지위원회가 담당을 했다가보다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담당을 했으므로 이질문을 비상대책위원장님에게 넘기도록하겠습니다..

인수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임자가 8대 성평위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려하지 않았으면 하는점이 성폭력 신고창구를 만들때, 중앙운영위원회 내부의 철저한 논의를 거쳤던 것도 있고 인권센터 기구의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피해 학우들에게 도움을 주고 연대를 하는 과정에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건학식 관련된 질문을 주셨는데 인권복지위원회 인권사업국장으로서 비건학식 제공에관련해서 총무팀과 직접 미팅을 한 경험이 있는데 동시에 두가지 식을 제공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와관련해서 총무팀과 논의한 결과, 기억하기로는 학교에 학식 시스템에서 생각보다 제공할 수 있는 비건식의 폭이 적습니다. 만약 비거니즘을 하고 계신다면, 비거니즘을 하고 계신 학우 분들의 선택의폭이 얼마나 좁은지 아실 수 있으실건데요. 특히 학식의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맞춰야하고, 저희같은 경우에는 삼성 웰스토리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식재료로 구성을 해야하기때문에. 비건 가능식에 들어가는 재료가 웰스토리에서 제공이 불가능하다면 그러한 식단을 제공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권 관련 의제에 있어서 수요의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고 총무팀에서도 동의하지만, 다른 음식을 먹고 싶은 학우들의 선택권도 어느정도 보장해야하는 것이 학교의 입장인것이고. 학교 측에서 그러한 입장을 밝혔기때문에 비건식과 논비건식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말씀하시는 중간에 죄송한데요 답변시간 초과해서 마무리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의장 :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자세하게 말씀을해주셔서,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

겠습니다. 피해사례신고창구 경우에는 주된 핵심은 반성폭력 회칙에 근거를 하고 있고 해당 회칙자체가 학생사회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해당회칙에 근거를 하고있고, 3가지 창구로서 교내, 교외, 학생자치 기구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고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지 전문 기관인 인권센터를 통해 자문을 거쳤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인권복지위원회 업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권위원회 보고하겠습니다.

장애인권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4대 비상대책위원회 장애인권위원장 공공인재학부 21학번 편지희 확대운영위원회 대표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장애인권위원회(이하 '장인위')는 장애 학생의 기본권을 증진하고 장벽 없는 캠퍼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을 진행합니다. 장인위는 모두가 동등한 구성원으로 함께하는, 배리어프리한 학교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인위 진행 및 예정 사업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입생 장애 인권 교육 책자 사업입니다. 장인위는 중앙대 신입생 학우분들에 필요한 장애 인권 교육을 구성한 책자를 제작 완료하여, 각 단과대 학과/부 단톡방을 통해 온라인 책자 배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학우분들의 권리 의식을 제고하고자 홍보 이벤트 사업으로 책자를 읽고 참여하는 퀴즈/소감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둘째, 사회학과 권리 가이드라인 장애 인권 부분 자문 사업입니다.

장인위는 사회학과 제23대 학생회 '사이'의 사회학과 권리 가이드라인의 제작 과정에서 장애 인권 부문에 대하여 자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장인위 자문 및 피드백이 반영된 권리 가이드라인을 사회학과에서 배포 완료하였습니다.

셋째, 63대 총학생회 장인위 문집 발간 사업입니다. 63대 장인위 2학기 사업을 인수·인계받아, 장인위 소개와 63대 장인위 활동, 오픈 세미나의 내용을 담아 문집을 제작하였습니다. 63대 장인위에서 진행한 사업과 세미나의 내용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학우분들이 읽어볼 수 있도록, 제작 완료된 실물 문집 40부를 학내에 비치하고자 합니다.

넷째,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이하, '장대넷')과의 연대 및 통학길 배리어프리 사업입니다. 장인위는 다양한 학교 인권자치단체 및 기관과 연합하여 장애 인권에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는 장대넷과 연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권의 의제를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더욱 확대하고 네트워킹 하였을 때 학내 뿐만 아니라 넓은 장에서의 문제 해결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대넷과 연대 사업으로 통학길 배리어프리 사업을 진행합니다. 장인위는 중앙대학교 통학길 환경이 배리어프리한지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장대넷에 속한 단위들과 조사 결과를 공유하였고 공론화까지의 실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사업을 함께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장애학생지원센터, 이하 ‘장지원’ 과의 협의체 참여입니다.

장애 학생과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활발하게 소통을 이루고 장지원과 협력할 사안들을 논의하고자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협의체 특방에서 교류할 사항들을 소통하고 협력 진행할 사업들을 논의하는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장애 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위원회 개최입니다.

장인위는 22년도 1학기에 장애 학생의 교육권이 교수자에 의해 침해된 사례를 확인하여, 관련 논의와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지원위원회, 이하 ‘특지위’ 개최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특지위란 장애 학생의 교육, 시설, 지원 등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장애 학생 교육권 침해 사례와 의견을 다루고, 교수자 대상 장애 인권 교육 등 장애 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해결을 함께 요구할 것입니다.

일곱째, 학내 장애 인권 정책 공약 마련 사업입니다.

학내에 장애 학생의 인권을 고려한 정책을 확립하고 정착되도록 하는 것 또한 장인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대 학생 자치 사회에서 장애 학생이 배제되지 않고 모두가 공존하는 학교 사회를 조성하고자, 배리어프리 경로 지도 사업과 배리어프리 문화적 교류 사업을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에 전달하고자 기획한 사업입니다.

여덟째, 배리어프리 경로 지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 63대 장인위에서 제작한 교내 건물 배리어프리 지도 사업에서 나아가, 교내의 배리어프리한 경로 지도의 필요성을 보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캠퍼스 내 경로를 조사해 배리어프리 경로 지도로 제작하는 사업으로, 접근성이 결여된 캠퍼스 경로를 학교 본부에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등 캠퍼스 내 장애 학생의 이동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본 사업은 약 한 학기로 가져갈 중장기 활동으로 기획 단계에서부터의 내실화를 이루었습니다.

아홉째, 배리어프리 공지 가이드라인 및 배리어프리 건물 지도 업데이트입니다. 63대 장인위에서 제작한 배리어프리 공지 가이드라인과 건물 지도에서 변경 사항이 있는지 파악하여 이를 업데이트하는 사업입니다.

열째, 선거운동본부 대상 인권질의서 및 가이드라인 활용 제안서 발송입니다. 장인위는 인권복지위원회와 함께 질의서 및 제안서를 완성하여 재선거를 진행하는 총학생회·사회과학대학·예술대학 선본에 공식적인 절차로 인권질의서 및 가이드라인 활용 제안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특히 장인위는 선본이 학교에 극소수인 장애 학생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장애 인권 감수성을 가지고 공약과 기조에 임했는지를 유권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권위원회 보고 안건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사회학과 부학생회장 대리인 이수빈: 안녕하세요 사회학과 부학생회장 대리인 이수빈입니다. 우선 수고해 주시는 장애인권위원회 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리구요. 마이크를 들게 된 이유는 자료집을 보니 진행중인 사업 그리고 예정하고 있는 사업이 많은데, 특히 문집이나 기본 사업에 대한 업데이트는 일반 학우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는 사업인것 같은데, SNS를 통한 홍보가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다고 파악을 했음. 앞서 의장님께서 답변해주신 것을 통해서 장인위에 홍보소통국이 부재하다는 것을 파악했는데 극복방안이 있는

지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권위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인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상시적으로 진행되는사업이 굉장히 많음. 예를들어 장애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하고있는 소통창구, 협의체 사업 등은 장애인권위원회에서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에 별도의 사업 보고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사업들도 많음. 더불어서 장대넷과의 연대사업이나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배리어프리 지도 사업등은 진행상황을 일일이 보고하지 않고 사업이 완료된 이후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학우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를 드릴 예정입니다. 말씀해주신 문집사업같은 경우 현재 책자 제작을 40부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우분들께서 장인위활동을 보실 수 있도록 학내에 배치를 할 예정이고, 장인위에는 현재 홍보소통국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문집 사업에대해서 홍보도 sns를 통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마이크 앞쪽으로 전달 부탁드립니다.

경영학부 B반 부학생회장 이재원: 네 안녕하세요. 경영학부 B반 부학생회장 이재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느꼈던 점 중 하나는 교내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을 실제로 본 적이 없고 그들이 스스로 다닐 길이 없을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포탈이 있다고 하지만 포탈을 타러 가는 길에 계단이나 오르막길이 있는 경우가 많고 휠체어를 타고 에스컬레이터를 혼자 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캠퍼스 지리 자체의 한계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혹시 배리어 프리 캠퍼스를 마련하기 위한 건물 지도 업데이트 등의 사업들을 진행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으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애인권위원회 편지희: 경영학부 B반 부학생회장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권위원회에서는 소통창구 개설을 통해서 장애학생의 불편 사항, 지원사항에 대한 문의사항을 상시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교내 휠체어 등의 이용자 및 장애 학생들의 불편한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장애인권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인지하고 있고 이에 편성하게 된 사업이 배리어프리 경로 지도 사업입니다. 배리어프리 경로 지도 사업의 경우 교내 건물 안에 있는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교내 건물 간의 어떠한 경로가 배리어프리한지, 형성되어 있는지 조사를 하여 장애학생들을 위한 배리어프리한 경로를 소개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들의 편의 지원을 위해서 기획을 하게 된 사업이고요. 따라서 해당 사업은 교내의 배리어프리한 경로 지도에 대해서, 이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조사인력과 조사에 대한 중장기적인 기획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22년도 1 학기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고요. 장애인권위원회에서 더불어서 장애학생들의 시설 지원이나 교내, 예를 들어서 서라벌 홀 같은 경우 휠체어를 타신 장애 학우분들이 고정형 책걸상 등으로 인해 이용을 하기가 힘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단위요구안 작성 등을 통해 학교 본부에 시정을 직접적으로 요청을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영학부 부학생회장 이재원: 답변 감사합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추가 질의하실 분 있으신가요? 지금 질의 및 답변 시간이 초과되어서 의결 진행을 하고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대표자 두 분 맞으신가요? 두 분에 대해 추가적인 발언권 의결 진행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자 두 분에 대한 발언권 부여한다는 안건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면 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대표자 분들은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기권하시는 대표자 분께서는 비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집계결과입니다. 참석인원 74명 중 찬성 64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영학부 D반 부학생회장 이수민:

안녕하세요. 경영학부 D반 부학생회장 이수민이라고 합니다. 우선 장애인권이라는게 사회를 살아가다보면, 사각지대화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힘써주시고 있다는 점 장애인권위원회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질의응답은 아니고요. 신입생 장애인권교육책자를 배포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홍보이벤트도 진행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입생 장애인권책자 홍보 이벤트를 SNS에서 조금 더 홍보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벤트 실제로 참여했는데요. 실제로 참여해보니까 교육책자를 읽으면서 저도 새로운 내용도 많이 알게되더라고요. 대체텍스트부터 해서 이런 내용을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점도 되게 좋다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신입생 대상으로 교육 책자가 만들어졌고 배포가 완료 되었다 라는 것만 공지하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이벤트를 하나까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 독려한다 라는걸 조금 더. 저희 경영학부 같은 다른 여러 과에게 배포하여 학생들에게 알려진다면 더욱 많은 학우들이 장애인권에 더 직접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저도 이 이벤트에 참여를 할 수 있었고 그런 점에서 좋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홍보가 되어서 장애인권에 대해 더 많은 학우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분 비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 대리인 이현수:

네 편지희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 대리인 이현수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5번에 보시면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과의 연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중앙대 서울캠 장애인권위원회는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의 정단위로 참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의 경우에는 정단위에 분담금을 부과하고 있는걸로 아는데요. 작년 전학대회에도 여쭙봤던 내용이지만 올해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분담금은 어떻게 부담하고 있는지, 학생회비로 부담하고 있는 게 맞는지 여쭙보고 싶어 질문 드렸습니다.

장애인권위원장 편지희:

네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 대리인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의 회비는 현재 완전히 결재를 요청한 단계는 아니고요. 학생회비 요청을 통해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에 회비를 납부할 예정이었습니다. 실제로 다른 단위에서도 장대넷 회비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중앙대 장인위도 비대위 요청을 통해서 학생회비로 납부될 수 있도록 결재 요청을 드릴 예정입니다. 충분히 답변 되셨을까요?

사회과학대학 비대위 대리인 이현수:

학생회비로 납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경영 B반에서 질의 주신 것에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 신축건물들이 건설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건물 내 베리어 프리를 거부하는 주요 이유가 이미 지어진 건물을 개축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든다 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막 쌓아올려지고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 설계단계에서부터 여러 지체장애학우들을 비롯한 장애학우들을 감안할 수 있도록 장인위가 설계단계부터 개입할 방안을 강구해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권을 위해 특별히 헌신해주시는 편지희 학우님과 장애인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권위원장 편지희: 말씀해주신 부분, 신축건물 건축단계 부분에서부터 장애학생의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합니다. 해당 부분은 학교 기관 모든 단체에서 장애학생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건물 지원이나 학교 행사의 지원, 학교 사회 전반에서 장애학생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이를 당연한 권리 사안으로 인지하고 진행단계에서부터 장애 학생들을 위한 예산의 편성,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부분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장애인권위원회의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보고안건입니다. 졸업준비위원회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준비위원장님 보고좌석으로 나와주세요.

졸업준비위원회 부위원장 권순구 :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4대 비상대책위원회 졸업준비위원회 부위원장 창의 ICT 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부 18학번 권순구 학생 대표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위원장께선 자가격리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하여 권한을 대행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졸업준비위원회는 예비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졸업관련 제반 업무와 재학생들이 졸업 이후의 진로에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 총학생회 특별 자치 기구입니다.

먼저, 완료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졸업앨범 배부입니다. 작년 가을에 촬영했던 졸업 사진 검수 하는 작업을 올해 1월에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2월 14일~ 2월 18일에 진행된 학위수여식기간에 졸업앨범 오프라인 배부를 진행하였고, 오프라인으로 배부 받지 못한 학우분들에게는 택배를 통하여 수령을 도와 드렸습니다.

두 번째, 졸업 기념품 배부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업체의 사정으로 납품 기한이 늦어져 현장배부를 현장신청으로 변경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현장신청자에 한해 무상으로 택배를 보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후 2주간 온라인 신청을 받은 후 모든 수량을 이상없이 보내드렸습니다.

세 번째, 학위복 대여사업입니다.

총무처에서 진행한 해당 사업에 대해 공지하고, 여러 문의사항에 관하여 안내를 도와드렸습니다. 2월 14일 ~ 3월 4일 3주간 진행된 해당 사업에 많은 학우분들이 학위복을 대여받아 졸업의 순간을 아름답게 담아가셨습니다.

이제부터 예정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학년 대표자 회의의 진행입니다. 4학년 대표자 회의는 이전의 졸업 앨범과 졸업기념품 관련 논의 뿐만 아니라, 졸업, 취업과 관련하여 대학/학부별 요구사항을 파악한 후 졸업을 앞둔 학우 분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그에 알맞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LINC사업단과의 교류를 통한 취업지원정책 추진입니다,

작년에도 취업지원정책에 관한 행사를 진행했었지만, 행사가 학우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에는 LINC사업단과의 교류뿐만 아니라 대표자 회의에서의 요구를 반영하여 학우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졸업준비위원회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대표자 분께서는 질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네 마이크 전달해주세요

간호대학 D반 비상대책위원장: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호대학 D반 비상대책위원장 민채원입니다. 다음이 아니고 4학년 대표자회의진행에서도 졸업앨범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졸업앨범 사진촬영할 때

작년같은 경우에 간호학과는 a,b반 c,d 반 나눠서 실습 프로를 진행하게 됩니다. A,B반은 촬영을 잘 끝냈는데, C,D반은 실습날과 졸업 촬영날짜가 겹쳐서 c,d 반이 촬영 날짜를 미뤄서 사진 촬영 기사님과 날짜를 협의한 바 있습니다.그런데 중간에 사진기사분께서 갑자기 그날이 안 된다고 해서 실습이 끝난 다음에 애들을 모이게 해라 해서 c,d 반 단체로 사진 촬영을 거부했던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 진행하실 때에는 간호학과 일정을 조금 고려해서 사진촬영 기사분과 협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발언하시는 대표자분들께서는 발언 속도를 조금만 조절해주시면 원활한 속기록 작성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졸업준비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그러한 점에 대해 완벽하게 파악이 안 되어서 문제였던 것 같고요. 이번년도부터는 간호학과 실습 일정에 맞춰 촬영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네 다음 질의해주실 대표자님?

경영학과 학생회장 박신화: 경영학과 학생회장 박신화 입니다. 지금까지 졸업생들을 위해 졸업기념품 배부 사업을 진행해오셨는데요. 이에 추가해서서 예정 사업으로 학우분들 특히 졸업생분들 수요를 반영해 졸업 기념 푸양 굿즈 공구 구매 사업을 진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로는 특히 학위복을 입고있는 푸양이 인형에 대한 수요가 정말 많을 것 같아 이러한 수요들을 반영하여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예정사업으로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졸업준비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저희도 이번 졸업기념품 배부를 진행하면서 푸양이 관련 졸업기념품에 대한 수요가 많음을 알게 되었고 작년에 비해 훨씬 많은 졸업기념품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좋게 받아들여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번에는 업체와 컨택할 때 굿즈들을 구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학과 학생회장 박신화: 답변 감사합니다.

부비상대책위원장 류동현: 네 추가적인 질의 사항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고 안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1학기 확대운영위원회 모든 순서가 끝났습니다.

늦은시간까지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대표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장님께서 폐회를 선언해 주시겠습니다.

의장: 2년 만에 오프라인 학생 대표자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년 간 비대면 학사로 인해 학생 사회 많은 어려움 겪어왔습니다. 현재 대면 학사로의 전환 이후에 비대 위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학생 자치의 정상화를 위해서 주어진 임기 내에서 많은 인원들과 함께 많은 노력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어진 임기 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조언들을 반영해서 더 좋은 학생자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1학기 확대운영위원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수소리)

